

# 후국일

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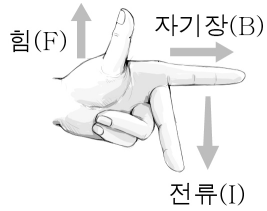
4월 교육청 대비 워밍업 자료

오 르 비  
후 국 일  
김 민 수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공기가 진동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때 공기가 가죽의 진동을 받아 생기는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작으면 낮은 음이 난다. 그리고 공기의 진폭이 크면 강한 소리가, 작으면 약한 소리가 난다.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 재생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피커로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는 영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 보이싱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수직 방향을 이루도록 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이 위아래로 ㉡ 작용하게 함으로써 소리를

재생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왼쪽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생성되는 힘이 자기장과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플레밍의 왼손 법칙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으로는 영구 자석, 탑 플레이트, 보이싱 코일, 보빈, 진동판, 댐퍼, 폴피스 등이 있다. 영구 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탑 플레이트는 이 자기장을 보이싱 코일 방향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싱 코일은 보빈에 감겨 있는 도선으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영구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하여 생성되는 힘이 보이싱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보이싱 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보빈은 보이싱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하여 소리를 재생하게 한다.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빈에 감겨 있는 보이싱 코일이 위아래로 ㉢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싱 코일의 중심을 잡아 준다. 그리고 폴피스는 전류가 흐르면서 보이싱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영구 자석과 탑 플레이트로 ㉣ 분산시켜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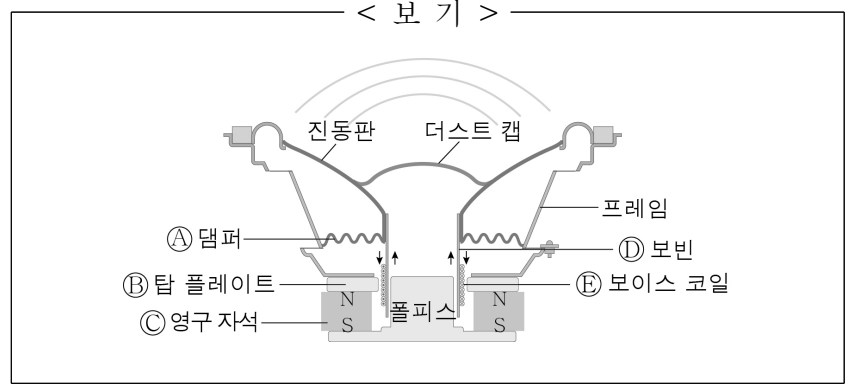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보이싱 코일이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진동시켜야 한다. 진동판의 반복 운동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를 보이싱 코일에 흘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영구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보이싱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보이싱 코일이 받는 힘이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동판이 위아래로 반복 운동을 하며 소리가 재생된다.

한편 자기장(B)과 전류(I)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보이싱 코일에 작용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힘(F)은 커진다. 그런데 영구 자석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 일정하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는 보이싱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22. '다이내믹 스피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류는 보이싱 코일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 ② 보이싱 코일과 보빈이 움직이는 방향은 동일하다.
- ③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소리를 재생하지 못한다.
- ④ 보이싱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보이싱 코일이 힘을 받는다.
- ⑤ 보이싱 코일이 받은 힘은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 작용을 유도한다.

23. <보기>는 '다이내믹 스피커'의 단면도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이싱 코일의 중심을 잡아 준다.
- ② ㉡: 영구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을 보이싱 코일 쪽으로 향하도록 제어한다.
- ③ ㉢: 보이싱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영향을 받아 자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 ④ ㉣: 보이싱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전달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킨다.
- ⑤ ㉤: 교류 전류의 방향 전환에 따라 보빈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이퀄라이저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여 음악에 따라 음색을 조절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는 저음 대역에 해당하는 전류의 ( ㉠ ) 방법을 통해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을 강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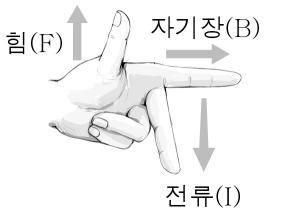
- ① 세기를 크게 하는
- ② 진폭을 작게 하는
- ③ 방향을 전환시키는
- ④ 진동수를 크게 하는
- ⑤ 진동수와 진폭을 작게 하는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 ② ㉡: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 ③ ㉢: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
- ④ ㉣: 갈라져 흩어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
- ⑤ ㉤: 어떤 것의 크기나 범위 등이 하나로 정하여져 있음.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공기**가 진동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때 공기가 가죽의 진동을 받아 생기는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작으면 낮은 음이 난다. 그리고 공기의 진폭이 크면 강한 소리가, 작으면 약한 소리가 난다.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 재생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피커로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는 영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수직 방향을 이루도록 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이 위아래로 ㉡ 작용하게 함으로써 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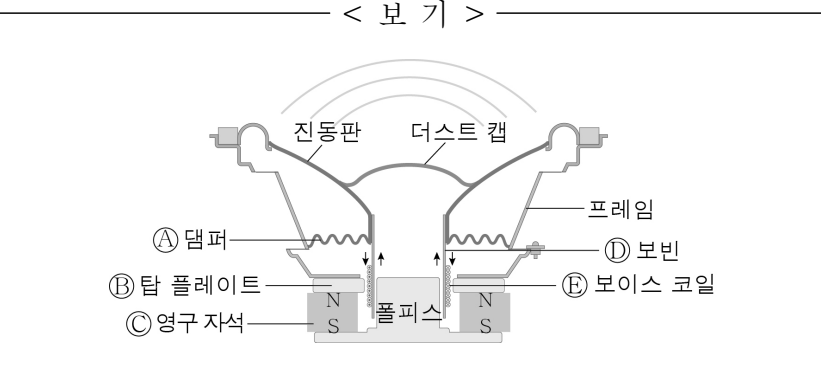


재생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왼쪽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생성되는 힘이 자기장과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으로는 영구 자석, 탑 플레이트, 보이스 코일, 보빈, 진동판, 댐퍼, 폴피스 등이 있다. 영구 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탑 플레이트는 이 자기장을 보이스 코일 방향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스 코일은 보빈에 감겨 있는 도선으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영구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하여 생성되는 힘이 보이스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보이스 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보빈은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하여 소리를 재생하게 한다.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빈에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 준다. 그리고 폴피스는 전류가 흐르면서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영구 자석과 탑 플레이트로 ㉣ 분산시켜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진동시켜야 한다. 진동판의 반복 운동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를 보이스 코일에 흘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영구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이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동판이 위아래로 반복 운동을 하며 소리가 재생된다.

**한편 자기장(B)과 전류(I)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힘(F)은 커진다. 그런데 영구 자석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 일정하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는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구조 잡기**

- 1문단 - 북이 소리를 내는 원리 -> 같은 원리로 스피커는 다양한 소리를 재생함
- 2문단 - 다이내믹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원리 -> [자기장 + 전류 -> 힘 -> 진동 -> 소리 재생] ->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 가능
- 3문단 -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과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의 각각의 역할
- 4문단 - 다이내믹 스피커가 소리를 내기 위해 위아래로 진동하는 보이스 코일 -> [자기장 + 교류 전류 -> 힘 -> 소리 재생]
- 5문단 - [자기장의 세기 일정 + 전류의 변화 -> 힘의 변화 -> 스피커 소리의 크기 변화]

**1문단**

① 1문단은 [북]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정의]나 [예시]로 지문이 시작될 때는 단순히 그러한 정의된 개념이나, 예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 예시 -> 구체화된 제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문단에서도 결국은 ["공기"의 진동수와 진폭 -> 북이 다양한 소리를 내는 원리] -> ["전류"의 진동수와 진폭 -> 스피커도 다양한 소리를 재생]이 핵심이었죠. 따라서 아마도 다음 문단에서는 제시된 제재인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원리]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글이 되겠죠.

[북이 소리를 내는 원리]

- 1) [북을 칠 -> 가죽이 진동 -> 공기 진동 -> 소리 발생]
  - 2) ["공기"의 진동수의 변화 -> 음 높이의 변화], ["공기"의 진폭의 변화 -> 음 세기의 변화]
- > 스피커도 위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 & 진폭 -> 다양한 소리 재생]을 함.

**1문단 정리**

-> [공기 -> 북이 다양한 소리를 내는 원리] -> [전류 -> 스피커가 다양한 소리를 내는 원리]

**2문단**

① 2문단은 1문단에서 제시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단이었죠. 즉 [전류 -> 스피커가 다양한 소리를 재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2문단부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낯선 소재,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기 때문이죠. 늘 말하지만 제시되는 여러 개념들은 [각각] 받아들이면 당연히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개념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제시된 정보를 묶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그러한 정보가 [왜?] 제시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줘야 해요.

②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원리에서 중요한 것들은 [자기장, 전류, 힘]이었죠.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가 재생되는 메커니즘 = 원리]

- 1) [영구 자석에서 형성된 -> "자기장" +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 "전류"] -> 둘이 수직 방향을 이룸 ->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 발생 -> 소리가 재생됨]
- 2) 이러한 메커니즘은 플레밍의 왼손법칙으로 설명 가능 = [자기장, 전류, 힘]이 모두 서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

-> 또한 과학, 기술 지문에서 이러한 [과정&원리]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때는 높은 확률로 지문이나 <보기>에서 같이 [그림]을 제시해줘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림이 있다면 반드시 그림에 한 문장씩 맞춰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실전적이겠죠.

**2문단 정리**

->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가 재생되는 메커니즘 ->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 가능

**3문단**

① 2문단까지 해서 1문단에서 언급한 [스피커가 소리를 재생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3문단에서는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 -> 각 부품이 2문단에서 언급한 메커니즘에서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단이었죠. 3문단 역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정보량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따라서 여러분은 해당 개념들을 읽어가면서 최대한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해두고 그 중 핵심이 되는 정보들을 위주로 남겨주셔야 해요.

② 2문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중요했던 것은 [자기장 + 전류 -> 힘]의 과정이었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주셨으면 되겠죠. 또한 그러한 부품들 역시 역시 23번 문제의 <보기>에서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림에 표시를 하던가, 한 부분씩 확인하고 맞춰가면서 읽어주었다면 훨씬 수월했겠죠. 모든 세부 정보를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과 각 기능]

- 1) [영구 자석 -> "자기장" 형성] -> [탑 플레이트가 그러한 "자기장"을 -> 보이스 코일 방향으로 제어함]
- 2) [보빈에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에는 "전류"가 흐름 -> 1)에서 제어되어 도달한 "자기장"과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상호 작용함 =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 ["힘"이 생성 됨 -> 보이스 코일을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함 = 진동하게 함]
- 3) [보이스 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보빈은 -> 2)의 과정에서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을 ->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 -> 소리를 재생]
- 4) [댐퍼는 ->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 -> 보빈이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
- 5) [폴피스는 ->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열을 -> 영구 자석과 탑 플레이트로 분산시켜 열을 식힘]

-> [영구 자석 -> 자기장 -> 보이스 코일 -> 자기장 + 전류 -> 수직 방향 -> 힘 발생 -> 보이스 코일 진동 -> 소리 재생]

**3문단 정리**

->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과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

**4문단**

① 4문단이 왜 제시가 되는지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문단은 3문단에서 제시한 과정 중 [보이스 코일의 진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제시한 문단이었죠. 3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피커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진동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진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류 전류]에 대해서 설명했죠. 즉 정리하면 [영구 자석에 형성된 자기장 +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 -> 수직 방향 상호작용 -> 보이스 코일 진동]인데,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 전류]이므로 그러한 전류의 방향 전환에 의해서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진동하게 된다는 거였죠.

**4문단 정리**

->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원리 -> [동일한 방향의 자기장 + 교류 전류 -> 수직 방향의 상호 작용]

**5문단**

① 4문단까지해서 기본적으로 [전류 ->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끝났죠. 5문단에서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자기장 + 전류의 변화] -> [힘의 변화] -> [소리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로 인해 [소리의 크기]가 변화함을 제시하며 글이 마무리 되었네요.

**5문단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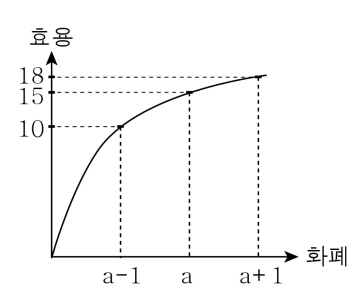
->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가 변화하는 원리 -> [전류의 변화]

금융 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그 중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한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다. 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 상품 ㉔에 500원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때 40%의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의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기대 효용은 투자 수익인 2,000원에 40%를 곱한 값( $2,000 \times 0.4 = 800$ )과 투자 손실인 -500원에 60%를 곱한 값( $-500 \times 0.6 = -300$ )의 총합인 500원이 된다.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이고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면 위험 추구형이다. 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 상품 ㉔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고, 손실을 우려하여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려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다.

이처럼 기대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왼쪽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투자에 성공해서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증가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8의 차이인 3이 된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여 화폐가 a에서 a-1로 1

단위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0의 차이인 5가 된다. 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3)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5)을 더 크게 인식하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만일 ㉔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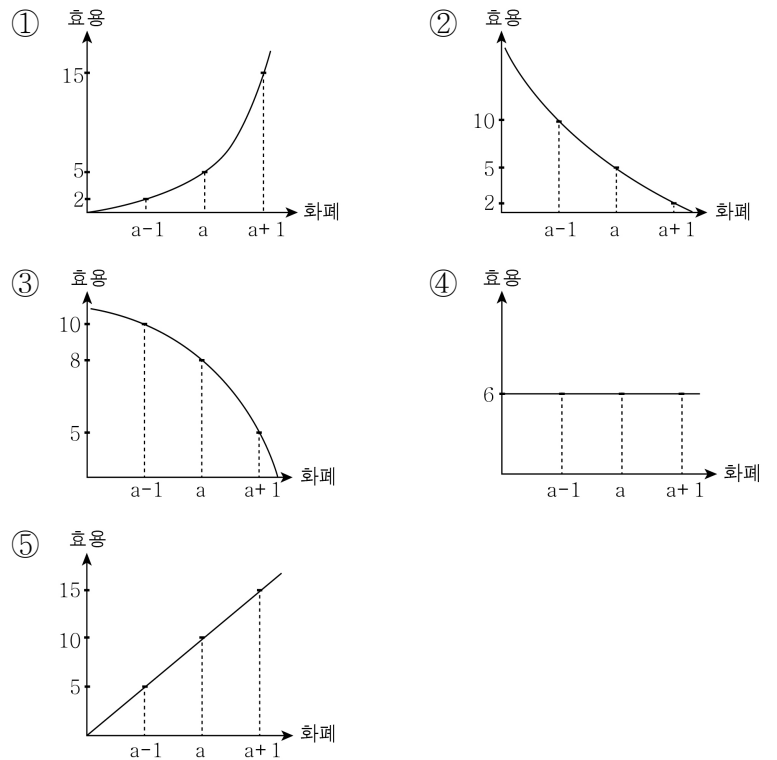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 한계효용: 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로 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26. 밑글에서 언급된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투자 상품의 유형                      ② 기대 효용의 계산 방법
- ③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                ④ 투자 성향의 분류 효과
- ⑤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

27. ㉔과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2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귀하는 5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두 상품 중 하나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느 경우를 더 선호하십니까?  
(단위: 만 원)

	투자 비용	투자 수익	수익을 얻을 확률	기대 효용
A 상품	50	450	20%	50
B 상품	50	200	40%	50

	A 상품	B 상품	현금 보유
갑		✓	
을	✓		
병			✓

- ① ‘갑’은 ‘병’에 비해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하겠군.
- ② ‘갑’과 ‘을’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하였군.
- ③ ‘을’은 ‘갑’에 비해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군.
- ④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
- ⑤ ‘병’은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을 더 크게 인식하겠군.

금융 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그 중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한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다. 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 상품 Q에 500원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때 40%의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의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기대 효용은 투자 수익인 2,000원에 40%를 곱한 값(2,000 × 0.4 = 800)과 투자 손실인 -500원에 60%를 곱한 값(-500 × 0.6 = -300)의 총합인 500원이 된다.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이고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면 위험 추구형이다. 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 상품 Q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고, 손실을 우려하여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려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다.

이처럼 기대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쪽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투자에 성공해서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증가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8의 차이인 3이 된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여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0의 차이인 5가 된다. 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3)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5)을 더 크게 인식하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만일 ①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 한계효용: 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로 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전체 구조 잡기

- 1문단 -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 2문단 - [금융 회사 ->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삼음]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설명
- 3문단 - [금융 회사 ->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삼음] -> 같은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 -> 투자 성향 분류
- 4문단 - 같은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 ->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
- 5문단 - 금융 회사는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추천 -> 그로 인한 효과

<1문단>

① 이젠 누구나 아는 [Q -> A]로 이루어진 글이었어요. 다만 이렇게 [P->S], [Q->A]로 제시된 글에서 단순히 [P,Q] -> [S,A]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한 질문 또는 문제점을 제시하기 전에 그러한 질문, 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정의]나 [예시]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후에 [P,Q]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S,A]를 제시하는 구조로 쓰여지죠. 다만 그러한 대답 역시 바로 제시되기 보다는 그 사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난후에 마지막 문단쯤에 가서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죠.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중간의 제시되는 개념을 보면서 매몰되지 말고, 그러한 개념이 왜 제시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개념이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읽어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② 이 글에서도 먼저 [투자 상품의 유형 -> 주식과 예금의 비교]를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둘의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읽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1문단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 -> 주식과 예금의 차이 비교 -> 사람들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상품 선호]이 흐름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구체화된 제재는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였죠. 이 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구요. 따라서 다음 문단부터는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 성향과, 그걸 판단하는 금융 회사의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커요.

1문단 정리

-> [다양한 투자 상품이 존재 -> 사람들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상품 선호 -> 금융 회사는 그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해 최적의 투자 상품 추천] ->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

<2문단>

① 2문단에서는 첫 문장이 결국 핵심이었고, 2~3문단은 매우 긴말하게 연결된 문단이었죠. 2문단에서 [금융 회사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 고객을 분류]라고 제시했죠. 즉 1문단에서 던진 질문 [판단 기준은 무엇?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당연히 2문단부터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설명해주겠죠.

② 2문단에서는 [투자의 기대 효용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문단이었어요. 정의를 통해 [투자의 기대 효용]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었죠. 따라서 정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풀지 말고 [예시]를 통해 이해해주었으면 됩니다. 또한 2문단에서는 [투자의 기대 효용]까지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3문단에서는 그러한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투자의 기대 효용 =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 = [(투자 수익 × 발생 확률) + (투자 손실 × 발생 확률)]

2문단 정리

->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의 성향 판단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설명

<3문단>

① 2문단에서 [투자의 기대 효용 -> 고객들의 태도 차이 -> 금융 회사가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이라고 제시했고,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면 3문단에서는 그러한 효용을 바탕으로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구체화해서 설명해주는 문단이었죠. 즉 2~3문단은 같은 흐름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핵심은 2문단에서 [투자의 기대 효용]을 구했고, 그러한 [기대 효용에 대한 선호] VS [화폐 보유의 효용에 대한 선호]를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 차이 -> 투자 성향 차이]를 설명하는 문단이었어요.

② 정리하면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2가지로 나뉜다고 말하고, 각각을 비교하고,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었어요.

[2문단에서 구한 투자의 기댓값 = 투자의 기대 효용] VS [화폐 보유의 기대 효용] -> 선호 차이 -> 태도가 차이가 남

- 1) (투자의 기대 효용 < 화폐 보유 기대 효용) -> 위험 회피형
- 2) (투자의 기대 효용 > 화폐 보유 기대 효용) -> 위험 추구형

3문단 정리

->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의 성향 판단 -> 같은 효용에 대해서도 [화폐 보유의 기대 효용]과의 비교를 통한 -> 고객들의 태도 차이 설명

<4문단>

① 2~3문단을 통해서 [투자의 기대 효용 설명 -> 같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 -> 투자 유형 분류]를 제시했죠. 4문단에서는 그러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해주는 문단이었죠. 따라서 3문단까지 잘 이해하면서 왔다면 어렵지 않은 문단이었어요. 또한 제시되는 그래프를 차근차근 내용과 맞춰가면서 읽어주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구요. 결국 정리하면 앞선 문단에서 말한 [위험 추구형 <-> 위험 회피형]의 구분을 [한계효용]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거죠.

[한계효용 개념 -> 소비자들의 태도 차이 설명]

- 1) (투자 성공 만족 < 투자 실패 불만족) -> 위험 회피형 성향
- 2) (투자 성공 만족 > 투자 실패 불만족) -> 위험 추구형 성향

4문단 정리

-> 3문단에서 말한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

<5문단>

① 4문단까지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모두 설명했고, Q에 대한 대답을 제시했죠. 즉 [금융회사가 ->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 무엇? ->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죠. 5문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성향에 따라 -> 다양한 투자 상품 추천 -> 그로 인한 효과]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5문단 정리

-> 금융 회사는 고객들의 기대 효용에 대한 태도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추천함 -> 그로 인한 효과

논리학은 논증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논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논리학을 ㉠ 전통 논리학이라 부른다. 연역 논증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을 말한다. 그리고 정언 문장이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술어'로 이루어진 다음 네 가지 형식의 문장을 말한다.

- 모든 A는 B이다.                      • 모든 A는 B가 아니다.
- 어떤 A는 B이다.                      • 어떤 A는 B가 아니다.

(1)은 연역 논증의 하나로 세 개의 정언 문장으로 구성된 정언 삼단 논증의 예이다.

- (1) 모든 [아버지]는 [남자]이다.                      <전제1>  
 어떤 [사람]은 [아버지]이다.                      <전제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남자]이다.                      <결론>

(1)에서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인 '사람'을 소명사(S), 결론의 술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P)라 하며, '아버지'와 같이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증명사(M)라 한다. 만약 술어가 '걷는다'와 같이 동사인 경우에는 '걷는 존재'와 같은 명사(名辭)\*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대전제,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소전제라 한다. 이를 사용하여 (1)을 형식화하면 (2)와 같다.

- (2) 모든 [M]은 [P]이다.                      <대전제>  
 어떤 [S]는 [M]이다.                      <소전제>  
 그러므로 어떤 [S]는 [P]이다.                      <결론>

정언 삼단 논증에서 증명사(M)는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S)와 대명사(P)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만약 전제에 증명사가 없으면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논증을 구성할 수 없다. (2)에서 결론의 [S]-[P]는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제의 'M, P, S'는 배열이 자유롭기 때문에 'M, P, S'를 조합해서 ㉡ 정언 삼단 논증의 네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삼단 논증의 제1격에서부터 제4격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언 문장을 대명사, 증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 한다.

그런데 (3)은 정언 삼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언 삼단 논증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

- (3)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전제1>  
 비가 온다.                      <전제2>  
 그러므로 소풍은 취소된다.                      <결론>

<전제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문장이 결합된 것이다. <전제2>는 <전제1>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중 하나이며, <결론>은 <전제1>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문장이다. 따라서 정언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학으로는 이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없다.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 프레게는 소명사, 대명사, 증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언 삼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는 ㉢ 명제 논리학을 제안하였다.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

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 하여 'p, q, r' 등의 기호로 표시하고, 단순 명제에 논리적 연결사인 '∨(또는)', '∧(그리고)', '→(만약 ...이면 ...이다)', '~(...가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복합 명제를 만들었다.

가령 (3)의 <전제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개의 단순 명제가 연결된 복합 명제로, 각각의 단순 명제를 'p'와 'q'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단순 명제 'p'와 'q'는 '만약 ...이면 ...이다.'에 해당하는 논리적 연결사 '→'를 사용하여 'p→q'와 같은 복합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을 기호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4) 만약 p이면 q이다.                      (4') p → q  
 p이다.                      ⇒                      p  
 그러므로 q이다.                      q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에서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가령, 'p∨q'는 'p'와 'q'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지만, 'p∧q'는 'p'와 'q'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 된다. 또한 'p→q'는 'p'와 'q'가 모두 참인 경우에는 참이지만,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 따라서 복합 명제의 진릿값은 단순 명제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한다. (4')는 <전제2>가 <전제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인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인데, 이러한 형식을 ㉣ 전건 긍정이라 한다.

명제 논리학은 정언 문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전통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장들까지 논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논증의 모든 요소를 기호화하여 ㉤ 명제 논리학은 자연 언어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후 명제 논리학은 술어 논리학으로 발전되었는데, 술어 논리학은 술어 기호를 사용하여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한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논리학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

\* 명사(名辭): 하나의 개념을 언어로 나타내며 명제를 구성하는 데에 요소가 되는 말.

2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리학의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논리학의 의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③ 논리학의 특징을 인접 학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 ④ 논리학의 논증 방식이 단순화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논리학의 변화에 영향을 준 여러 학문을 고찰하고 있다.

3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연역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된다.
- ② 전통 논리학은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분석한다.
- ③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모든 문장은 정언 문장이다.
- ④ 명제 논리학은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 ⑤ 술어 논리학은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논증한다.

31. ㉠과 ㉡의 입장에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neg$	<u>&lt; 보기 &gt;</u>	$\perp$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전제1>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	
어떤 사람은 생명체이다.	<전제2> 민수는 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죽는다.	<결론> 민수는 논다.	

- ① ㉠:  $\neg$ 에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 존재]이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② ㉠:  $\neg$ 에서 '생명체'는 전제에만 나타나므로 중명사이고, '사람'은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이므로 소명사이다.
- ③ ㉡:  $\neg$ 에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를 '만약 생명체라면 죽는 존재이다.'로 재구성한다면, 이는 'p → q'의 구조에 해당한다.
- ④ ㉡:  $\perp$ 의 <전제1>은 복합 명제에, <전제2>는 단순 명제에 해당한다.
- ⑤ ㉡:  $\perp$ 의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를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논리적 연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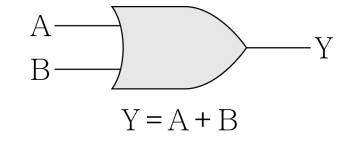
32.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                     |                     |
|---------------------|---------------------|---------------------|
| ① $\frac{M-P}{S-M}$ | ② $\frac{P-M}{S-M}$ | ③ $\frac{P-M}{M-S}$ |
| $\frac{S-P}{S-P}$   | $\frac{S-P}{S-P}$   | $\frac{S-P}{S-P}$   |
| ④ $\frac{M-P}{P-S}$ | ⑤ $\frac{M-P}{M-S}$ |                     |
| $\frac{S-P}{S-P}$   | $\frac{S-P}{S-P}$   |                     |

3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가 달리지 않으면 멈춘다. 차가 달린다. 그러므로 차가 멈추지 않는다.
- ② 만약 그것이 생명체라면 죽는다. 그것이 죽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체이다.
- ③ 비가 오면 가뭄이 끝난다.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았다.
- ④ 교실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 교실 청소가 끝났다. 그러므로 집에 갈 수 있다.
- ⑤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철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철수는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34. <보기>는 ㉡을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neg$	<u>&lt; 보기 &gt;</u>	$\perp$
논리 게이트는 '1'과 '0'의 이진법 정보로 운용되는 전자 회로로 명제 논리학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입력값이 '1'인 것은 명제의 진릿값이 참인 경우에, 입력값이 '0'인 것은 명제의 진릿값이 거짓인 경우에 대응될 수 있다. 논리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 단자 'A', 'B'와 하나의 출력 단자 'Y'로 구성된다. <그림>은 논리 게이트 중 'OR 게이트'이다.		
		
이는 'A'와 'B' 중 하나 이상의 입력값이 '1'이면 출력값이 '1'이 되고, 입력값이 모두 '0'이면 출력값이 '0'이 되는 경우이다. 이 외에 'A', 'B'의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출력값이 '1'이 되는 'AND 게이트'도 있다.		

- ①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 단자 'A', 'B'는 명제 논리학의 단순 명제, 출력 단자 'Y'는 복합 명제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값에 의해 출력값이 결정되는 것은 명제 논리학에서 단순 명제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해 복합 명제의 진릿값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겠군.
- ③ 'OR 게이트'의 'A + B'를 명제 논리학의 논리적 연결사로 기호화하여 나타내면 'A ∨ B'에 해당하겠군.
- ④ 'OR 게이트'는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 중 적어도 하나의 진릿값이 참일 때 결론의 진릿값이 참인 경우에 해당하겠군.
- ⑤ 'AND 게이트'에서 'Y'가 1인 것은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의 진릿값 중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 해당하겠군.

논리학은 논증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논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논리학을 ① 전통 논리학이라 부른다. 연역 논증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을 말한다. 그리고 정언 문장이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술어'로 이루어진 다음 네 가지 형식의 문장을 말한다.

- 모든 A는 B이다.                      • 모든 A는 B가 아니다.
- 어떤 A는 B이다.                      • 어떤 A는 B가 아니다.

(1)은 연역 논증의 하나로 세 개의 정언 문장으로 구성된 정언 삼단 논증의 예이다.

(1) 모든 [아버지]는 [남자]이다.                      <전제1>  
어떤 [사람]은 [아버지]이다.                      <전제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남자]이다.                      <결론>

(1)에서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인 '사람'을 소명사(S), 결론의 술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P)라 하며, '아버지'와 같이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증명사(M)라 한다. 만약 술어가 '걷는다'와 같이 동사인 경우에는 '걷는 존재'와 같은 명사(名辭)\*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대전제,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소전제라 한다. 이를 사용하여 (1)을 형식화하면 (2)와 같다.

(2) 모든 [M]은 [P]이다.                      <대전제>  
어떤 [S]는 [M]이다.                      <소전제>  
그러므로 어떤 [S]는 [P]이다.                      <결론>

정언 삼단 논증에서 증명사(M)는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S)와 대명사(P)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만약 전제에 증명사가 없으면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논증을 구성할 수 없다. (2)에서 결론의 [S]-[P]는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제의 'M, P, S'는 배열이 자유롭기 때문에 'M, P, S'를 조합해서 ① 정언 삼단 논증의 네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삼단 논증의 제1격에서부터 제4격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언 문장을 대명사, 증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 한다.

그런데 (3)은 정언 삼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언 삼단 논증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

(3)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전제1>  
비가 온다.                      <전제2>  
그러므로 소풍은 취소된다.                      <결론>

<전제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문장이 결합된 것이다. <전제2>는 <전제1>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중 하나이며, <결론>은 <전제1>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문장이다. 따라서 정언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학으로는 이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없다.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 프레게는 소명사, 대명사, 증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언 삼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는 ② 명제 논리학을 제안하였다.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 하여 'p, q, r' 등의 기호로 표시하고, 단순 명제에 논리적 연결사인 '∨(또는)', '∧(그리고)', '→(만약 ...이면 ...이다)', '~(...가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복합 명제를 만들었다.

<1문단>

① 통시적인 글이었죠. 이런 통시적인 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문에서 다루는 구체화된 핵심 제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제시되는 개념이 많다고 그런 모든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시되는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해주고, 결국 그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즉 이 개념이 왜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지문 처음에 어떤 소재를 정의해주면 그 지문은 그러한 소재가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다만 그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제재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여기서도 그랬어요. [논리학]이라는 소재가 중심 소재가 되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논리학 -> 아리스토텔레스 -> 논증의 타당성 검토]가 구체화된 핵심 제재였어요. 즉 이 글은 단순히 [논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논증의 원리와 타당성]이 핵심이 되는 글이 되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2문단에는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 연구 +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겠네요.

1문단 정리  
-> [아리스토텔레스 -> 논증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 -> 논증의 타당성 검토 시도]

<2문단>

① 1문단에서 제시된 제재를 2문단부터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전통 논리학]의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문단이었어요. [정언 문장, 연역 논증] 등 낯선 개념이 나올 때 겁 먹지 말고, 차분히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주세요. 평가원은 여러분이 해당 개념을 이해할길 원하면 반드시 [정의 -예시]로 구체화해주시니까요. 여기서도 그랬구요.

[전통 논리학] =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 "연역 논증"]

1) 연역 논증 =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  
2) 정언 문장 =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며 + (주어 - 술어)로 이루어진 4가지 형식의 문장]  
3) 정언 삼단 논증 = [3개의 정언 문장으로 구성된 -> 연역 논증]  
② 결국 2문단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위와 같겠죠.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주셨으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 기억할 수도 없구요.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을 읽고 들어가야 하는 생각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전통논리학]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거죠. 단순히 연역 논증, 정언 문장을 이해하는 걸 넘어 그런 개념들이 왜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2문단 정리  
->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전통 논리학] ->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

<3문단>

① 3문단은 2문단과 흐름이 이어지는 문단이었죠. 2문단의 제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문단이었어요. 2문단에서 [정언 삼단 논증]을 제시한 후, 3문단에서는 먼저 [소명사 / 대명사 / 증명사 -> 대전제 / 소전제]의 개념을 제시하죠. 그런 후에 2문단에서 제시한 [정언 삼단 논증 = (1) -> 형식화 -> (2)]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3문단 정리  
-> [정언 삼단 논증 -> 소,증,대명사와 소,대전제를 통해 -> 형식화]

<4문단>

① 4문단에서는 [형식화된 정언 논증에서 M인 증명사의 역할], [정언 삼단 논증의 네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러한 전통 논리학이 [명사 단위 논리학]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죠. 3문단에서 정언 삼단 논증을 형식화하고, 4문단에서 형식화된 정언 삼단 논증에 대해서 [명사]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 것은 결국 [전통 논리학 -> 명사 단위 논리학]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이게 큰 흐름이고,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 사이에 제시된 개념들은 이러한 큰 흐름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일 뿐이었죠. 물론 그런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다만 만약 시험장에서 그게 안 된다면 그러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4문단 정리  
-> [정언 문장을 대명사, 증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 = 명사 단위 논리학]

<5문단>

① 1~4문단까지의 흐름을 잡고 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연구 -> 정언 삼단 논증을 중심으로 -> 전통 논리학 -> 명사 단위 논리학]의 흐름이었죠. 5문단에서는 그러한 정언 삼단 논증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언 삼단 논증의 유형을 벗어난 논증에 대해서 제시해주죠. 그리고 그러한 논증은 [전통 논리학으로 타당성을 분석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네요. 즉 앞서 말한 [전통 논리학]의 [문제점,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늘 그렇듯 이렇게 기존의 무언가의 한계나, 문제점이 제시되면 높은 확률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나 해결책이 제시가 되죠. 특히 이론이나 주장의 경우에는 [통시적]으로 그 전 이론의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 이론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구요. 여기서도 그랬죠. 당연한 거죠. [문제가 있다 -> 큰일이다 -> 끝]이렇게 글이 전개될 리는 없잖아요.)

5문단 정리  
-> 전통 논리학으로 분석할 수 없는 논증 -> 전통 논리학의 문제, 한계

<6문단>

① [20세기]를 보는 순간 [통시적인 글]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매우 그래워. 뭔가 앞에 나온 전통 논리학의 문제점, 한계를 보완해주는 이론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매우 그래워. 그렇다면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어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매우 매우 그래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냥 쪽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러한 과정이 어색하고, 불편해요. 늘 그냥 읽어왔기 때문이죠. 다만 앞으로는 그렇다만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었죠. 기출 분석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을 하게 될 거구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시행 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전통 논리학]과 다른 [명제 논리학]이 제시되는 문단이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다만 여러분들은 [전통 논리학 <-> 명제 논리학]을 명확하게 비교해주고 읽어주셔야 하죠. 결국 [전통 논리학 -> 한계 -> 명제 논리학 등장]의 흐름이었고, 둘의 차이는 [명사 단위 <-> 명제 단위]에서 논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프레게] -> [명제 논리학 = 명제 단위로 논증을 분석]

1) 명제 =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2) [명제 논리학 - "명제 자체를 기본 단위"로 삼음] <-> [전통 논리학 -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  
3) [단순 명제 =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 -> p, q, r 등의 기호로 표시] -> [단순 명제에 논리적 연결사를 사용] -> [복합 명제] -> 결국 정리해주면 [전통 논리학]은 정언 명제들은 [소명사 / 증명사 / 대명사]와 같은 명사 단위로 나누어서 논증을 분석했다는 것이고 반면 [명제 논리학]은 [명제] 자체를 나누지 않고, 기본 단위로 삼아 논증을 분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명제가 [단순 명제]에 해당하며 그러한 명제들이 [논리적 연결사]로 연결되면 [복합 명제]가 되는 거네요.

6문단 정리  
-> 전통 논리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명제 논리학의 등장



가령 (3)의 <전제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개의 단순 명제가 연결된 복합 명제로, 각각의 단순 명제를 'p'와 'q'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단순 명제 'p'와 'q'는 '만약 ...이면 ...이다.'에 해당하는 논리적 연결사 '→'를 사용하여 'p → q'와 같은 복합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을 기호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lcl}
 (4) \text{ 만약 } p \text{이면 } q \text{이다.} & & (4') \quad p \rightarrow q \\
 p \text{이다.} & \Rightarrow & p \\
 \text{그러므로 } q \text{이다.} & & q
 \end{array}$$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에서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가령 'p ∨ q'는 'p'와 'q'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지만, 'p ∧ q'는 'p'와 'q'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 된다. 또한 'p → q'는 'p'와 'q'가 모두 참인 경우에는 참이지만,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 따라서 복합 명제의 진릿값은 단순 명제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한다. (4')는 <전제2>가 <전제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인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인데, 이러한 형식을 ⊕ 전건 긍정이라 한다.

명제 논리학은 정언 문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전통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장들까지 논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논증의 모든 요소를 기호화하여 ⊕ 명제 논리학은 자연 언어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후 명제 논리학은 술어 논리학으로 발전되었는데, 술어 논리학은 술어 기호를 사용하여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한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논리학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

\* 명사(名辭): 하나의 개념을 언어로 나타내며 명제를 구성하는 데에 요소가 되는 말.

<7문단>  
 ① 7문단은 6문단에서 제시한 [명제 논리학]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문단이었죠. 포인트는 [예시]를 통해서 앞에서 제시한 [단순 명제 -> 논리적 연결사 -> 복합 명제]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주는 것이고, 앞서서 [전통 논리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3)의 명제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주시는 거죠.

7문단 정리  
 -> 전통 논리학이 적용되지 못한 (3)에 대한 명제 논리학의 적용

<8문단>  
 ① 7문단까지해서 [전통 논리학 -> 명제 논리학]의 등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8문단에서는 둘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명제 논리학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이해를 돕는 [예시]가 제시되고 있는 문단이었던데요.

[전통 논리학]  
 1)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하여 -> 논증의 타당성 검토  
 [명제 논리학]  
 1) [명제들의 진릿값 +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여 -> 논증의 타당성 평가 -> 전건 긍정의 개념 제시  
 ② 결국 예시로 제시되는 것들은 [단순 명제의 진릿값(참 or 거짓) + 논리적 연결사] -> [논증의 타당성]이 예시였고, (4')와 같은 형식의 논증이 [전건 긍정]이라는 것을 제시해주네요. [전건 긍정]이 갑자기 왜 나온 거죠? 그래요. 전건 긍정은 [명제들의 진릿값 +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여 타당성이 평가되는 논증의 사례인 거죠.

8문단 정리  
 -> [전통 논리학] <-> [명제 논리학 -> 명제들의 진릿값 +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 -> 논증의 타당성 평가] -> [(4') = 전건 긍정]

<9문단>  
 ① 9문단에서는 그러한 [명제 논리학]의 의미를 두 가지 서술하고, [명제 논리학 -> 술어 논리학]의 발전을 제시한 후 [술어 논리학]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한 후 마무리되는 문단이었던데요. 어렵지 않아요.)

9문단 정리  
 -> 명제 논리학의 의미 -> [명제 논리학 -> 술어 논리학] -> 술어 논리학의 의미

전체 구조 잡기  
 1~4문단 -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전통 논리학]  
 5문단 - 전통 논리학의 한계  
 6~8문단 - 전통 논리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명제 논리학]  
 9문단 - [전통 논리학 -> 명제 논리학 -> 술어 논리학]로의 발전과 의미

섬유 예술은 실, 직물, 가죽, 짐승의 털 등의 섬유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미적 효과를 구현하는 예술을 일컫는다. 오브제란 일상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 섬유 예술은 실용성에 초점을 둔 공예와 달리 섬유가 예술성을 지닌 오브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섬유 예술이 새로운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계기는 1969년 제5회 '로잔느 섬유 예술 비엔날레전'에서 올덴버그가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부드러운 타자기」라는 작품을 전시하여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 올덴버그는 이 작품을 통해 공예의 한 재료에 불과했던 가죽을 예술성을 구현하는 오브제로 활용하여 섬유를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섬유 예술은 평면성에서 벗어나 조형성을 강조하는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여 작가의 개성과 미의식을 구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에 바스켓트리, 콜라주, 아상블라주 등이 있다. 바스켓트리는 바구니 공예를 일컫는 말로 섬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꼬기, 엮기, 짜기 등의 방식으로 예술적 조형성을 구현하는 기법이다. 콜라주는 이질적인 여러 소재들을 혼합하여 일상성에서 탈피한 미감을 주는 기법이고, 아상블라주는 콜라주의 평면적인 조형성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과 폐품 등을 혼합하여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콜라주와 아상블라주는 현대의 여러 예술 사조에서 활용되는 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섬유 예술에서는 순수 조형미를 드러내거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인류 문명의 한 단면을 상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섬유를 오브제로 활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라우센버그의 「침대」가 있다. 이 작품에서 라우센버그는 섬유 자체뿐 아니라 여러 오브제들을 혼합하여 예술적 미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침대」는 캔버스에 평소 사용하던 커다란 침대보를 부착하고 베개와 퀴트 천으로 된 이불, 신문 조각, 잡지 등을 붙인 다음 그 위에 물감을 흩뿌려 작업한 것으로, 콜라주, 아상블라주 기법을 주로 활용하여 섬유의 조형적 미감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35. 윗글에서 언급된 '섬유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섬유를 예술성을 지닌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 ② 올덴버그를 통해 조형 예술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③ 섬유의 오브제로서의 기능을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
- ④ 바스켓트리는 섬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조형성을 구현한다.
- ⑤ 순수한 미의식을 배제하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예술을 지향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라우센버그가 창작한 「모노그램」이다. 라우센버그는 나무 판넬에 물감을 칠하고 나무 조각이나 신발 굽 등 버려진 물건들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털이 풍성한 박제 염소를 놓고 그 염소의 허리에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타이어를 끼워 놓았다. 이 작품을 통해 생명체가 산업화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① 박제 염소의 털을 활용한 것에서 섬유를 하나의 예술 매체로 인식하는 섬유 예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나무 조각이나 신발 굽, 염소, 타이어 등은 작가의 예술적 미의식을 구현하는 데 활용된 오브제로 볼 수 있군.
- ③ 콜라주 기법이 주는 3차원적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버려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부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판넬 위에 염소를 세워 놓은 것에서 아상블라주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염소의 허리에 끼워진 타이어를 통해 생명체를 위협하는 산업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군.

㉠ 독방에서도 울음이 터진 것은 어머니가 묻혀 있을 서해안의 어느 이름 모를 야산을 향해 북쪽 벽 아래에다 물 한 그릇 떠 놓고 절을 드린 다음이었다. 나는 그렇게 한 그릇의 물 앞에 꿇어앉아 소리를 죽여 울면서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혼령이 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만나야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기심이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혼령이라도 한 번만은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 같았다. 당신의 말마따나 너무나 드센 팔자를 타고나서 뼈가 다른 남매를 또 다른 의붓아버지 그늘에서 길렀더니 이제 비로소 자식과 함께 산 지 채 이 년이 못 되어 이번에는 자식 때문에 죽었다..... 더군다나 자식은 당신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죄명 아래 갇히고, 거기다가 당신은 생모이면서도 법적인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마저 금지되어 자식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당신의 병이라는 것도 화병으로 쓰러진 것이 원인이 되어 반신불수로 죽는 날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한 그릇의 물을 떠 놓고 그 앞에 꿇어앉아서 나는 어머니에게 찾아든 단말마의 순간에 어머니가 반신불수의 몸을 뒤틀며 나를 향해 부르짖었을 외마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았다.

“그만 울구 일어나. 몸두 성치 앓으면서..... 다 지난 일 아녀?”

이 선배가 내 한쪽 팔을 붙들어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두 눈을 손잔등으로 씻으며 새삼스럽게 어머니의 산소를 둘러보았다.

내가 어머니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생각한 것은 단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무렵이었다. 어떤 종교를 지닌 것도, 그렇다고 사후의 세계나 영혼의 존재를 굳게 믿는 것도 아닌 나로서는 어머니가 단말마의 순간까지 품고 있었을, 그러다가 외마디 소리로 나에게 남기고 갔을 예의 한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러한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래, 돌아가셨군 하고, 쉽게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더욱이나 없었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나서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날마다 어머니에게 떠 올렸던 물 한 그릇만으로 하루를 견뎌 내던 나는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비로소 자신의 단식에 대해서 의미를 붙였다.

좋수다. 당신의 죽음이 한스러운 만큼 나도 거기에 못지않겠수.

나는 그때 누구보다도 바로 어머니에 대해서 이를 악물었을 것이었다. 나는 굶어 죽을 결심이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고 간 한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나마 이겨 내고 싶었다. 어머니의 한에 대한 자신의 무력감이 이제는 한 그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번져 갔는지도 몰랐다.

열흘째 되는 오후 무렵이었다. 나는 창문 바로 옆에 누워 쏟아져 들어오는 초가을의 햇살을 아득한 시선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지 모르게 웅웅 귀를 울리는 이명과 함께 담장 밖 버드나무 숲에서 늦매미가 울어 대고 있었다. 나는 절반쯤은 잠이 든 상태에서 꿈결에서인 듯 나의 이명과 늦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런 소리들에 겹쳐서 문득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화, 이놈의 세상을 어이 넘어갈까나.....

어머니였다. 여섯 살 무렵이던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눕혀져 있었다. 늦봄의 긴 오후 나절을 뒷마루에 앉아서 어머니는 칭얼대는 나를 달래며 시름겨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극심한 흉년 끝에 닳친 보릿고개를 건디다 못한 어머니와 누님과 나 이렇게 세 식구는 논가의 웅덩이에 있는 물풀을 건져다 밀기울에 버무려 죽을 쑤어 먹고, 그중에 어렸던 내가 물풀에 독이 올라 온몸이 땡땡 부은 채 거의 죽어 가는 중이었다. 그런 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는 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육자배기의 느린 가락으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나의 이명처럼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려왔고, 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흠뻑 적셨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감옥에서 나와 월문리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울로 돌아온 후 폭음으로 몸과 정신이 쇠약해진 ‘나’는 답답한 마음과 응어리진 슬픔을 안고 다시 월문리를 찾는다.

어머니의 산소 앞에 있는 꽤 큰 덩치의 ㉢ 아카시아 숲이 시야를 답답하게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무리다 싶으면서도 낮을 대었다. 톱이 없이 낮만으로는 역시 무리여서 대충 윗가지나 쳐내고 말려고 했는데 차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좀 더 아카시아 나무의 밑동에 손을 대자 역시 예감대로 봉분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나는 기진맥진해 가면서도 결국 아카시아 숲을 모두 쳐냈다. 그것이 봉분임을 확인한 순간 나는 너무 지친 나머지 어머니 산소 앞에 벌렁 나자빠져 버렸다. 문득 잘했다,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어린애처럼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몸을 뒤집어 어머니의 산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화해합시다.”

산소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난 무렵이었다. 나는 마치 어머니의 산소 앞 아카시아 숲을 쳐내듯이 집 안팎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안채의 방문을 고쳐서 다시 달고, 창호지를 구해다가 새로 문을 바르고, 마룻바닥에 쉼처럼 내려앉은 먼지들을 씻어 내고, 뒤주에서 죽어 있는 몇 마리의 쥐새끼들을 꺼내어 파묻고, 안방에 나 있는 쥐구멍들을 막았다. 내가 부엌의 무너진 부뚜막까지 마저 고쳐서 다시 무쇠솥을 올려놓았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때 아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문간방에 누워 있었다. 처마 기슭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차츰 무성해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들고 안채로 건너갔다. 방안을 들어서며 내가 말했다.

“이런 밤엔 혼자 자기가 서로 외로운 법 아니우?”

나는 평소에 어머니의 잠자리였던 ㉣ 아랫목 바로 옆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다. 그러자 나는 마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와 버린 것처럼 깊고 아득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서 나는 어느 사이에 자신이 바로 이 폐가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나는 또다시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메, 내 새끼야아.

처마 기슭에서는 여전히 ㉤ 낙숫물 소리가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울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망망한 그리움이였다. 그러다가 나는 잠이 들었고, 나는 꿈을 꾸었다.

고향의 장터였다.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비는 어물전 부근이었다. 서른 언저리의 젊은 여자가 양옆에 어린 남매를 데리고 앉아서 좌판을 벌여 놓고 있었다. 좌판에는 갈치며 고등어 몇 마리가 텅그마니 올려져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에 나는 잠이 깨었다. 여자는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 여자였다. 잠이 완전히 깨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여자가 나의 새로운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 송기원, 「다시 월문리에서」 -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각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긴장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그와 관련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순행적 구성을 통해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머니의 산소에서 ‘나’가 어머니에게 건넨 “이제 화해합니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과 어머니에 대한 ‘나’의 한을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느끼던 ‘나’가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 어머니의 산소와 폐가를 정리하는 행동은, 어머니의 기구한 삶과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화해를 이루게 된다.

- ① ‘나’가 ‘빠가 다른 남매를 또 다른 의붓아버지 그늘에서’ 기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부분에서, 어머니가 살아온 기구한 삶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법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감옥에 갇힌 ‘나’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나’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며 독방에서 굶어 죽을 결심으로 단식하는 것에서, 어머니의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내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나’가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 어머니의 폐가를 손질한 후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나’가 어머니의 삶을 수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나’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앉아 있는 꿈속의 ‘젊은 여자’를 ‘나의 새로운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에서, ‘나’가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화해를 이루었음을 엿볼 수 있겠군.

18.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공간이다.
- ② ㉡은 ‘나’에게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환기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나’의 답답한 심정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는 소재이다.
- ④ ㉣은 ‘나’가 어머니의 자취를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⑤ ㉤은 어머니로 인해 겪었던 ‘나’의 고달픈 경험을 연상하게 하는 소재이다.

(가)

외모도 남에 비해 그리 빠지지 않고  
바느질 솜씨 길쌈 솜씨도 좋건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자란 까닭에  
좋은 중매 자리 나를 몰라준대요. [A]

좁고 굽주려도 걸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창가에서 베만 짠다네  
오직 내 부모님만 가없다 여기실 뿐  
그 어떤 이웃이 이내 속을 알아주리오. [B]

밤이 깊어도 베를 짜는 손 멈추지 않고  
베틀 소리만 삐걱삐걱 처량하게 우네  
베틀에 짜여 가는 이 한 필 비단  
끝내는 어느 색시의 옷이 되려나. [C]

가위로 싹둑싹둑 옷감을 마르노라면  
추운 밤에 손끝이 곱아 오네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들고 있지만  
이내 몸은 해마다 홀로 잔대요. [D]

-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

(나)

이 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닭이 울어서 귀신이 제 집으로  
가고 육보름달\*이 오겠습니다. 이 좋은 밤에 시꺼먼 잠을 자면  
하얗게 눈썹이 샌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육보름이  
면 옛사람의 인정 같은 고사리의 반가운 맛이 나를 울려도 좋  
듯이 허연 영감 귀신의 호통 같은 이 무서운 말이 이 밤에 내  
잠을 쫓아 버려도 나는 좋습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  
초롱 맑게 핀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  
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넋내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  
서 보내도 좋겠습니다.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  
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했습니다. 그가 열 살이 못 되어 젊디  
젊은 그 아버지는 가슴을 앓아 죽고 그는 아름다운 젊은 홀어  
머니와 둘이 동지선달에도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이 낡은 항  
구의 크나큰 기와집에서 그늘진 풀같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  
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당신  
께서 좋아하시는 산세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  
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  
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아직 쌀 때가 멀고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  
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  
새 형겅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낡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윗간  
에도 만윗간에도 누방에도 허청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켜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  
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디로는 복덩이가 돌아다  
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

고 복물을 낀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재갈재갈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느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  
며 살기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  
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솥뚜껑을 들어오고 곱새담\*  
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  
득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들이 되어 버리는 밤  
입니다. 그러다는 집으로 들어가서 마음 고요히 세 마디 달린  
수숫대에 마디마디 콩 한 알씩을 박아 물독 안에 넣는 밤인데  
밝은 날 산골이라는 윗마디, 중산이라는 가운데마디, 해변이라  
는 밑마디의 그 어느 마디의 콩이 분는가를 보고 그 어느 고  
장에 풍년이 들 것을 점칠 것입니다. 그러다는 닭이 울어서 새  
날이 되면 아홉 가지 나물에 아홉 그릇 밥을 먹으면, 먹으면  
몸 솔썰기\*가 쓴다는 김치와 먹으면 김멜 때 비가 온다는 물  
을 자주 먹고 싶어 하는 밤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보름의 아침이 됩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해뜨  
기 전에 동리 국수당의 스무나무 가지를 썬 오려서 가시가지  
에 하얀 솜을 피우고 그 솜발 속에 며칠 앞서부터 스물이고  
서른이고 만들어 놓은 울긋불긋한 각시와 새하얀 할미를 세워  
서는 굴통 담에 곱새담에 장독담에 꽂아 놓는데, 이렇게 하면  
이 해에는 하루같이 목화밭에서 천 근 목화가 난다고 믿는 그  
들이 새 옷의 스적이는 소리도 좋게 의좋은 짝패들끼리 끼리  
끼리 밀려다니며 담장마다 머물러서는 목화 따는 할미며 각시  
와 무슨 이야기나 하는 듯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닭이 우나?) 아, 닭이 울니다. 나는 이만 이야기를 그치고  
복밥을 기다리는 얼마 아닌 동안 신선과 고사리와 수선화와  
**병든 내 사람**이나 생각하겠습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달: 정월 대보름날 밤에 뜨는 가장 둥근 달을 의미함.

\* 곱새담: 풀 짚으로 만든 담.

\* 솔썰기: 소나무 송충이.

19.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삶의 덧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상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연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 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가)의 [A] ~ [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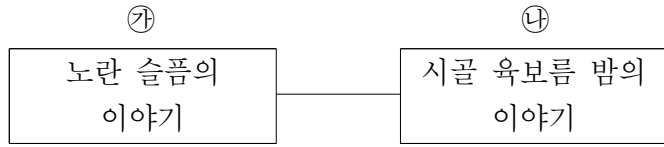
- ① [A]의 '가난한 집안' 사정은 [B]의 '하루 종일 창가에서 베  
만' 짜야 하는 구체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군.
- ② [A]의 '좋은 중매 자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D]의 '해  
마다 홀로' 자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했군.
- ③ [B]의 '어떤 이웃'도 알아주지 않는 '이내 속'은 [C]의 '처량  
하게 우'는 '베틀'에 투영되어 있군.
- ④ [C]의 '베틀에 짜여 가는 이 한 필 비단'은 [D]의 '옷감을 마  
르'는 힘겨운 일상에 위안을 주고 있군.
- ⑤ [D]의 '길옷을 만들고 있'는 상황은 [C]의 '어느 색시'의 처  
지와 대비되어 서글픔을 심화시키고 있군.

21.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백석은 ‘감각’과 ‘열거’를 통해 기억을 환기해 내는 탁월한 작가이다. 그의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편지」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추억과, 정월 대보름 고향 마을의 풍속에 대한 기억이 그것이다.



㉠은 사랑하는 여인을 수선화에 빗대어, 그녀에 대한 애련한 심정을 섬세한 필치로 담고 있다. 그리고 ㉡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에 대한 기억을 현재형 진술을 통해 촘촘히 불러냄으로써, 일제 강점기, 사라져 가는 고유의 풍속과 민족 정서를 복원하고, ‘지금’, ‘여기’에서 재현될 수 있는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했던 백석의 문학 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 ① ‘수선화 한 폭’은 글쓴이의 내면을 ㉠의 추억으로, ‘알록달록한 각시’는 ㉡의 기억으로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하는군.
- ② 화제가 ㉠의 ‘그’에서 ㉡의 ‘새악시 처녀들’로 확대되면서 글의 애상적인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군.
- ③ ‘병든 내 사람’을 비유한 시들어가는 ‘수선’은 ㉠의 ‘노란 슬픔’에서 환기되는 이미지와 연계되고 있군.
- ④ ㉡에서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의 풍속에 대한 기억을 열거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 ⑤ ㉡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밤입니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반복한 것은 기억 속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가) 우화소설(寓話小說)은 동물을 인격화하여 풍자를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작품을 말한다. 동물들의 언행을 통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인간 세계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서사 양식이다. 우화소설의 주요 유형으로는 소송 사건을 다루는 송사형 소설과 시비를 가리는 재판형 소설 등이 있다.

우화소설은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소설의 갈등을 부각하는 서사적 장치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동물의 외형이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물을 형상화하며, 구어나 비속어 또는 기지나 재치 있는 언술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화소설은 이러한 소설적 형상화 방식을 통해 **인간 세대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서대주전」은 쥐를 의인화한 대표적 우화소설이다. 서대주가 타남주가 모아 놓은 밤을 몰래 훔치자 타남주가 서대주를 관가에 고소하는 사건을 통해 당대 관리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별주부전」은 용왕이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자라를 시켜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잘못된 본성과 지배층의 횡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작품들과 같이 우화소설은 동물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나 봉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한다. 즉 우화소설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어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 의식과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회상을 모색하려는 문학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사령이 데리고 가 옥졸(獄卒)에게 넘겨주자, 옥에 끌어들여 단단히 가두고 돈을 내라 졸라댔다. 서대주는 갖고 온 물건을 옥의 수졸(守卒)에게 많이 주자, 수졸들이 대단히 좋아하며 큰 칼을 풀어 주어 편히 쉬게 하고, 하인과 같이 돌봐 주는 것이었으니, 돈이 마르면 귀(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대주가 곤하여 누워 있으니, 대서(大鼠)는 그 손을 주무르고, 중서(中鼠)는 그 다리를 안마하고 동서(童鼠)는 그 허리를 뺨으며 대주의 심란스러운 바를 위로하며, 대추, 밤 등속의 것을 주어 요기시키면서 밤을 새우니, 이것을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 날에 주쉬가 두 자리 크게 설치하고, 둘을 잡아들여 동서(東西)로 나누어 꿰어앉히고, 책상을 치며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 이놈, 조그마한 것이 잔악하기도 심하게 남의 물건을 하루 저녁에 다 도적질해 갔다 하는데, 그게 정말이나? 바로 대로 말할 것이지, 다소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당장에 엄한 형벌로 무겁게 치죄를 할 것이다.”

라고 형리가 고성으로 소리치니, 그 소리가 우렁차, 담보가 큰 자라 하더라도 놀래어 겁을 낼 지경이었는데, 더군다나 죄가 있는 약한 자로서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서대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는 별별 떨리는 것이었으나, 겉으로는 일상과 같이 태연히 정신을 진정하고 안색을 변치 않고서 우러러보며 대소(大笑)하고,

(중략)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 흙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는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아뢰겠나이다. 매년 봄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가을걷이를 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쫓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는데, 또 봄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이들을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원편의 용강산(龍岡山)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A]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얹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피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훈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앞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서대주가 옷설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꿰어앉았는데, 뽕죽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을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분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씩은 큰 칼을 벗겨 주고는, 술을 내려 주어 놀랜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서대주는 후에 수백의 여자를 취(娶)하고 자손이 번성하여 주(州), 군(郡), 현(縣), 읍(邑), 향려(巷閭), 향곡(鄕谷)에 살지 않음이 없고, 그들은 다 도적질로 생활을 하며, 세상의 아등, 적은 것들, 부녀 또는 가마 메는 졸부 등이 만나기만 하면 죽여 버리니, 이것은 즉 서대주가 사람을 해친 마음에 대한 앙갚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

(다) 이때에 뜰아래 섰던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려 하니 토끼 무단히 허욕을 내어 자라를 쫓아왔다가 수국원혼이 되게 되니 이는 모다 자취(自取)한 화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하리오. 세상에 턱없이 명리(名利)를 탐하는 자는 가히 이것을 보아 징계할지라도.

이때에 토끼 이 말을 들으며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 듯 정신이 아득하여 생각하되 ‘내 부질없이 영화부귀를 탐내어 고향을 버리고 오매 어찌 이 외의 변이 없을소냐. 이제 날개가 있어도 능히 위로 날지 못할 것이요, 또 축지(縮地)하는 술법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때를 벗어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오.’ 또 생각하되, ‘옛말에 이르기를 죽을 때에 빠진 후에 산다 하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 갈 방책을 헤아리지 아니하리오.’ 하더니 문득 한 피를 생각하고 이에 얼굴빛을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머리를 들어 전상을 우러러보며 가로되,

“소토(小兔)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아뢰리다. 대왕은 천승의 임금이시오 소토는 산중의 조그마한 짐승이라 만일 소토의 간으로 대왕의 환후 십분 나으실진대 소토 어찌 감히 사양하오며 또 소토 죽은 후에 후장하오며 심지어 사당까지 세워 주리라 하옵시니 이 은혜는 하늘과 같이 크신지라, 소토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다만 애달픈 바는 소토는 비록 짐승이오나 심상한 짐승과 다르와 분디 방성정기를 타고 세상에 내려와 날마다 아침이면 옥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주야로 기화요초(琪花瑤草)를 뜯어 먹으며 그 간이 진실로 영약이 되는지라. 이러하므로 세상 사람이 모두 알고 매양 소토를 만난즉 간을 달라하와 보챔이 심하옵기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와 염통과 함께 끄집어 청산녹수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사와 고봉준령 깊은 곳에 감추어 두웁고 다니옵다가 우연히 자라를 만나 왔사오니 만일 대왕의 환후 이러하온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오지 아니 하였으리요.”

하며 또 자라를 꾸짖어 가로되,

“네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을진대 어이 이러한 사정을 일언반사도 날 보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용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B]

“네 진실로 간사한 놈이로다. 천지간에 온갖 짐승이 어이 간을 출입할 이치가 있으리오. 네 얄은 꾀로 과인을 속여 살기를 도모하니 과인이 어이 근리(近理)치 아닌 말에 속으리오. 네 과인을 기만한 죄 더욱 큰지라. 빨리 너의 간을 내어 일변 과인의 병을 고치며 일변 과인을 속이는 죄를 다스리리라.”

토끼 이 말을 듣고 또한 어이없고 정신이 산란하며 간장이 없고 가슴이 막히어 심중에 생각하되 속절없이 죽으리로다 하다가 다시 웃으며 가로되,

“대왕은 소토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들으시고 굽어 살피옵소서. 이제 만일 소토의 배를 갈라 간이 없사오면 대왕의 환후도 고치지 못하옵고 소토만 부질없이 죽을 따름이니 다시 누구에게 간을 구하오려 하시나이까. 그때는 후회막급하신테이오니 바라건대 대왕은 세 번 생각하옵소서.”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또 그 기색이 태연함을 보고 심중에 심히 의아하여 가로되,

“네 말과 같을진대 무슨 간을 출입하는 표적이 있는가.”

토끼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이 생각하되 이제는 내 살아날 도리 쾌히 있도다 하고 여쭙오되,

“세상의 날짐승 가운데 소토는 홀로 하체에 구멍이 셋이 있사오니 하나는 대변을 통하옵고 하나는 소변을 통하옵고 하나는 특별히 간을 출입하는 곳이오니다.”

- 작자 미상, 「별주부전(龍主簿傳)」-

37. (가)에서 언급한 ‘우화소설’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동물을 의인화한 이야기로서 송사형과 쟁론형 등의 유형이 있다.
- ② 구어나 비속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봉건 사회의 잘못된 이념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 ④ 시비를 다투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대립적 가치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⑤ 계층 간의 갈등과 해소라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다.

38.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서대주의 모습을 뽐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다고 묘사한 것은 ‘동물의 외형’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타남주가 섬으로 귀양을 가도록 결말을 구성한 것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을 강조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서대주의 자손들이 사람에게 양값음을 당한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토끼와 용왕의 대립 구도를 설정한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토끼가 하체에 간이 출입하는 특별한 구멍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기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39. (가)의 [인간 세대에 대한 풍자]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수졸’을 통해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를 풍자하고 있다.
- ② (나)의 ‘서대주’를 통해 타인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간사한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③ (나)의 ‘원님’을 통해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관관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다)의 ‘토끼’를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간의 허황된 욕심을 풍자하고 있다.
- ⑤ (다)의 ‘용왕’을 통해 민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자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40. (나)와 (다)의 공통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전개 과정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액자식 구성을 활용하여 인물의 삶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④ 과장된 비유를 반복하여 현재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 사건을 교차하며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고 있다.

41. (나)의 [A]와 (다)의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무고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며 남들과 다른 면모를 역설하고 있다.
- ③ [A]는 특정 인물의 부당한 행동을, [B]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설득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2. (다)에 나타난 ‘토끼’의 태도를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군.
- ②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모색하는군.
- ③ 현재의 굴욕적인 상황을 참아 내며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군.
- ④ 권토중래(捲土重來)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실패를 만회하려 하는군.
- ⑤ 토사구팽(兔死狗烹)을 당할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군.



(가)

㉠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

(나)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울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榕樹)처럼  
 제 ㉡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새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마약 퍼들고 있다  
 -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나)는 계절적 배경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동적 심상을, (나)는 정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시상을 확대하고 있다.
  - ④ (가)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나)는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를 읽고 44번과 4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소재가 지닌 속성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는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속성을 통해,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생명을 이어가고 생(生)의 터전이 되어 주는 모습을, 스스로를 태우고 불을 피우며 온기를 품는 ‘아궁이’의 속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유리’와 ‘아궁이’는 각각 단절과 소통,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가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이 지닌 차단성에 기인한 것이겠군.
  - ② (가)의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며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이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겠군.
  - ③ (나)의 ‘고목’이 발이 묶인 채 하늘을 밀어올리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고목’이 새들과 다람쥐 일가의 생의 터전이 되는 것에서 ㉡이 지닌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고목’이 자신의 살을 달이는 모습과 이를 내놓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아래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탐구 과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와 (나)는 서로 대응되는 지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모둠별 토론을 통해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대응 요소들을 탐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탐구 결과]**

- A. 행위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B.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집약하여 제시함.
- C.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대응 요소	판단 근거	
A	(가)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를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를 통해 자연의 부단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가)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통해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모순된 심리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나)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를 통해 불에 타 버렸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고목의 이중적 속성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	(가)	‘산(山)새’는 화자의 품을 떠나 버린 작고 연약한 자식을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나)	‘날아오르는 새’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죽음도 기꺼이 감내하는 나무의 수용적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 .... ⑤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22~25번]

## 22번 : ⑤

->[다이내믹 스피커]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였고, 제시된 개념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어요. 정답이 되는 ⑤ 선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구요. 즉 [영구 자석에서 형성된 자기장] +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 -> [힘 발생]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죠. 선지에서는 이러한 인과 관계를 반대로 구성해서 오답을 만들었죠. 즉 [자기장 + 전류 -> 수직 방향으로 상호작용 -> 힘]인데, 선지에서는 [힘 -> 자기장 + 전류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과정과 원리가 제시되는 글에서는 [A -> B]와 같은 인과 관계를 [B -> A]와 같이 거꾸로 구성해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도록 해요!

①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열을 발생 -> 그러한 열을 폴피스가 영구 자석과 탑 플레이트로 분산시킴]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죠. 파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파악해서 읽어주시면 관련된 흐름을 통해 선지를 소거할 수 있어요.

②

->역시나 제시된 개념간의 관계를 묻는 선지였어요. [보이스 코일은 보빈에 감겨 있는 도선]이라고 했고, [보이스 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보빈은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한다고 했죠. 따라서 보이스 코일과 보빈이 움직이는 방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③

->4문단에서 제시한 정보였죠.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진동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진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장 + 전류 -> 수직 방향의 상호작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호 작용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므로 그와 수직 방향을 이루는 전류가 보이스 코일을 진동하게 한다고 했죠. 즉 [교류 전류 -> 전류의 방향이 전환됨 ->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이 이전과는 반대로 작용 ->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진동 -> 진동판이 진동]하게 하는 과정이었죠.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보이스 코일 역시 위아래로 진동하지 않을 것이고, 진동판이 진동하지 않으니 소리도 재생될 수 없겠죠.

④

->[영구 자석에서 형성된 자기장 + 보이스 코일에 흘려준 교류 전류 -> 둘이 상호 작용 -> 보이스 코일에 힘 발생 -> 보이스 코일 위아래로 진동 -> 진동판 진동]이었으므로 적절해요.

## 23번 : ③

->해당 문제의 <보기>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문의 3문단을 읽으면서 확인해주었으면 훨씬 수월했겠죠.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각각의 주요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은 영구 자석인데 자기장을 형성하는 부품이었죠. 이렇게 형성된 자기장은 ㉡(=탑 플레이트)에 의해서 보이스 코일로 제어되고(=㉡),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상호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장은 변하지 않으며, 전류가 교류 전류로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죠. 따라서 선지의 [자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적절하지 않네요. [자기장 + 방향이 전환되는 교류 전류 -> 힘을 발생]한다고 봐야 적절하겠죠.

①,⑤

->㉠은 댐퍼인데,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줌(=㉠) -> 그래서 보빈에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이었죠. 적절해요.

④

->㉡는 보빈인데, [보이스 코일에 고정되어 있음 ->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하여 -> 소리를 재생(=진동판의 진동)하게 함]이었죠. 적절해요.

## 24번 : ①

-><보기>를 보면 [이퀄라이저 -> 음세기를 조절하여 음색을 조절 -> 저음 대역에 해당하는 전류의 ㉠을 통해 -> 저음을 강화 = 저음의 세기가 커짐]이라고 했죠. 따라서 음의 높이는 [저음]으로 고정이고, 음의 [세기]를 강화한다는 거죠.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에서 제시해 준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 &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힘]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한 힘으로 인한 [소리의 크기]도 커지겠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준다는 ①이 적절하겠네요. 틀리신 분들은 보통 ②을 고르더라구요. 1문단에서 제시된 정보 때문인 거죠. [공기의 진폭 변화 -> 북 소리의 세기 변화] -> [스피커도 같은 원리] -> [전류의 진폭 변화 -> 스피커 소리의 세기 변화]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맞는 설명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소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진폭]이 커져야 되겠죠. ②은 작게 한다고 했으니 오답이구요.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와 [전류의 진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 방향도 일정 -> 교류 전류가 방향을 바꾸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 -> 보이스 코일의 진동 -> 소리 재생]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교류 전류의 세기가 강해지면 그로 인해 위아래로 방향이 전환될 때마다, 더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 -> 전류의 진폭 -> 소리의 크기]와 같은 관계가 되겠죠. 나머지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

## 25번 : ①

-> [재생 : 녹음, 녹화한 테이프나 필름 따위로 본래의 소리나 모습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 <-> [① : 파생]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26~28번]

## 26번 : ⑤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죠. 다양한 투자 상품이 존재하고, 그러한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역시 다양함을 제시한 후 금융 기관이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지를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①

->1문단에서 확인 가능하죠. 1문단은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 존재 ->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역시 다양 -> 금융 기관은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투자 상품을 추천 ->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 기관이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과 같은 흐름이었어요.

②

->2문단에서 확인 가능하죠. 2문단에서 [금융 기관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 성향 판단]을 제시하고, 먼저 [투자의 기대 효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 예시]를 통해서 제시하는 문단이었어요. 그러한 [예시]에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었죠. 2문단에 따르면 [투자의 기대 효용 = (투자 수익 X 발생 확률) + (투자 손실 X 발생 확률)]이라고 했어요.

③

->2~3문단의 핵심 내용이었죠. 금융 시간이 사람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 사람들의 태도 차이]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어요. 적절해요.

④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 가능하죠. 2~4문단에서 [금융 기관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 사람들의 태도 차이 -> 투자 성향 분류 -> 최적 상품 추천]을 제시하고,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무리했어요.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분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 27번 : ①

->해당 문단에서의 핵심은 [같은 투자 효용에 대한 -> 사람들의 태도 차이 -> 한계효용 개념으로 설명]이었죠. 지문에서는 ㉠과 반대의 [위험 회피형 성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었고, 여러분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 = 위험 추구형 성향]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죠. 지문의 해당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위험 회피형 성향]

->(투자의 성공해서 얻는 한계 효용 < 투자의 실패해서 잃는 한계 효용)

->(a+1에서의 한계 효용 - a에서의 한계 효용) < (a에서의 한계 효용 - a-1에서의 한계 효용)

= (투자 성공의 만족감 < 투자 실패의 불만족)

[위험 추구형 성향 = ㉡]

->(투자의 성공해서 얻는 한계 효용 > 투자의 실패해서 잃는 한계 효용)

->(a+1에서의 한계 효용 - a에서의 한계 효용) > (a에서의 한계 효용 - a-1에서의 한계 효용)

= (투자 성공의 만족감 > 투자 실패의 불만족)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과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를 보면 (a+1에서의 한계 효용 - a에서의 한계 효용)의 값이 (a에서의 한계 효용 - a-1에서의 한계 효용)의 값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건 ①밖에 없죠. 계산을 해보면 [(15 - 5 = 10) > (5 - 2 = 3)]이므로 [투자 성공의 만족감은 10], [투자 실패의 불만족은 3]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과 같은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②,③

->두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죠. 화폐의 단위가 증가할수록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감소하고 있으니깐요. 투자에서 성공하면 불만족을 느끼고, 실패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네요. 약간 변태같네요.

④

->효용이 일정하므로 ㉠이라고 볼 수 없어요. 투자의 성공하던, 실패하던 효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잖아요.

⑤

->a에서 화폐가 한 단위 [증가, 감소]할 때의 한계효용이 모두 [5]로 동일하죠. 따라서 [투자의 성공의 만족감 = 투자 실패의 불만족]인 사람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 28번 : ④

->좋은 문제였어요. 우선 지문에서는 [수익을 얻을 확률, 기대 효용, 손실액]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셨으면 됩니다. A의 투자 실패 확률은 [100% - 20%(=성공확률)]이므로 80%가 되겠죠. B의 실패 확률은 [100% - 40%(=성공확률)]이므로 60%가 되었겠네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했어도 무방하긴 한데,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지문에서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단서였어요. 그래서

이를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죠.

## <갑, 을>

- 1) [위험 추구 성향]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선호 > 현금 보유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선호] = [투자 성공의 만족감 > 투자 실패의 불만족]
- 2) [갑 <을]이 위험 추구 정도가 더 큼

## <병>

- 1) [위험 회피 성향] =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선호 < 현금 보유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선호] = [투자 성공의 만족감 < 투자 실패의 불만족]

-> 해당 선지를 A상품과 B상품의 [투자 실패 확률]을 묻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 실패 확률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고정된 값이죠. 따라서 병이든, 갑이든 (A의 투자 실패 확률 = 80%) > (B의 투자 실패 확률 = 60%)라고 보았겠네요. 적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차이를 보이는 성향은 객관적인 성공이나 실패 확률이 아니라, 그러한 확률과 수익, 손실을 계산해서 구한 [투자의 기대 효용]과 [화폐 보유의 효용]에 대한 선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였죠.

### ㉠

->갑은 투자를 선택했으므로 [화폐 보유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선호보다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선호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위험 추구 성향]인 거죠. 반면 병은 현금 보유를 선택했으므로 반대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 ㉡, ㉢

->갑과 을 모두 [현금 보유 < 투자]를 선택했으므로 [위험 추구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갑과 을 모두 [투자의 기대효용]에 대한 선호가 [현금 보유의 기대효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을]이 상대적으로 [갑]보다 더 높은 위험의 상품에 투자했으므로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모두 적절한 선지네요.

### ㉤

->을은 [위험 회피 성향]이므로 [투자 성공의 만족 < 투자 실패의 불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29~34번]

## 29번 : ①

->글의 전개 방식,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정답은 ①이네요. [전통 논리학 -> 명제 논리학 -> 술어 논리학]으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제시하는 글이었죠. [개괄적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는. 또는 그런 것]이니까 외워둡시다:)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소거법으로 푸는 아니라, 한 번에 정답인 선지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글을 전체적으로 잘 읽었다면 나머지 선지들은 자연스럽게 오답으로 느껴져야 하구요. 만약 내용 일치 문제와 같이 한 문제씩 소거하면서 답을 찾고 있다면 조금 더 분발해요.)

②

->[논리학의 의의 -> 다양한 관점에 고찰]아니죠. [명제 논리학과 술어 논리학]에 대한 의의가 마지막에서 제시되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③

->[인접 학문]과 비교하지 않았죠. 모두 [논리학]이었어요.

④

->[논증 방식이 단순화]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⑤

->[여러 학문 고찰]이 아니에요.

## 30번 : ③

->[정의]와 관련된 문장이었죠. [정언 문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정의]를 통해서 파악해줬으면 돼요. 기억이 안 난다면 바로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만 해주셨으면 되구요. 괜찮아요. 2문단에 따르면 [정언 문장 =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 (주어 - 술어)로 이루어진 -> 4가지 형식의 문장]이라고 했죠. 따라서 (주어-술어)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거나, 제시된 4가지의 형식이 아니라면 정언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A, B, C 조건을 모두 갖추면 -> D이다]라고 하는 진술에서 [A or A+C이면]과 같이 몇 개의 조건들만으로 [D]가 된다는 식의 오답 선지 구성은 빈번하니 유의해두도록 합시다. 또한 정의된 개념은 평가원이 선지에서 대부분 건드리니 꼭 정의된 개념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요 ;)

①

->적절하죠. 2문단에서 연역 논증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이라고 했죠. 따라서 연역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면 그러한 전제에 포함된 결론은 참이 되겠네요. 역시나 정의된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했나 묻는 선지였어요.

②,④

->핵심적인 정보였죠. [전통 논리학 : 명사가 기본단위] <-> [명제 논리학 : 명제자체가 기본 단위]이므로 모두 적절하네요.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 가능했어요. [술어 논리학 -> 술어 기호를 사용하여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한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 논리학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라고 했죠. 단순히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해당 정보는 [명제 논리학 <-> 술어 논리학]의 비교되는 정보였고, 이런 정보는 선지에서 빈번하게 건드린다는 게 얼어갈 점이 되겠네요 ;)

## 31번 : ④

-><전제1>은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처럼 [또는]이라는 [논리적 연결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합 명제]겠죠. <전제2> 역시 [민수는 일하지 않는 다]와 같이 [ ~ : ..... 가 아니다 ]라는 논리적 연결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전제2>는 단순 명제가 아니라, 복합 명제로 봐야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쉬운 선지였어요.

①

->[죽는다 -> 동사 -> 죽는 존재 같이 명사로 나타낼 수 있음]이라고 했죠. 적절해요.

②

->[중명사 = 전제에만 존재하면서 -> 전제들을 엮어주는 개념] / [소명사 =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이므로 적절해요. 정의된 개념에 대해 묻는 선지예요. 기억이 안 났다면 빠르게 돌아가서 확인해주셨으면 됩니다. 쫄지 마요. 괜찮아요 ;)

③

->[만약 생명체라면 죽는 존재이다]에서 [생명체이다 = p], [죽는 존재이다 = q]이므로 이 둘을 연결하면 [ p → q ]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복합 명제]에 해당하겠죠. 적절해요.

⑤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를 기호화하기 위해서는 [ ∨ ]에 해당하는 논리적 연결사가 필요하겠죠.

## 32번 : ④

->정언 삼단 논증에서 [증명사(M)는 ->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S)와 대명사(P)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전제1>과 <전제2>에 모두 나타나야 하겠죠. 그런데 ④번은 <전제1>에만 증명사(M)가 있고, <전제2>에 증명사(M)가 없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명명한 가능한 정언 삼단 논증 유형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해당 문제는 [삼단 정언 논증]에서 [증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줬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네요. 얼핏 보면 복잡해보이지만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였죠. :)

## 33번 : ④

->[⊙=전건 긍정]인데, 전건긍정은 [<전제1> =  $p \rightarrow q$ ], [<전제2>에서 <전제1>의 선행 조건인  $p$ 를 긍정 =  $p$ 이다]을 통해 [<결론>에서  $q$ 가 성립된다고 주장 =  $q$ 이다]이죠. 즉 쉽게 정리하면 [전제1 =  $p$ 이며  $q$ 이다] + [전제2 =  $p$ 이다]가 참일 때 [결론 =  $q$ 이다]가 참이 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인 거죠. 이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으면 ④이죠. [교실 청소가 끝나면(= $p$ ) -> 집에 갈 수 있다(= $q$ ) / 교실 청소가 끝났다(= $p$ 이다)] -> [집에 갈 수 있다(= $q$ 이다)]이므로 적절해요. 나머지는 모두 전제2인 [ $p$ 이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①

->[차가 달린다] -> X

②

->[그것이 죽는다] -> X

③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다] -> X

⑤

->[공부를 하지 않았다] -> X

## 34번 : ⑤

->[AND 게이트]는 [A와 B의 입력값이 모두 '1'일 때에만 -> 출력값이 '1'이 되는 것]이죠. 이는 명제 논리학으로 치면 [ $p \wedge q$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AND 게이트]에서 [ $Y = 1$ ]인 것은 [두 입력값이 모두 = 1]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는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의 진릿값이 모두 참인 경우로 봐야겠죠. 따라서 선지의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 해당하겠군]은 적절하지 않겠죠.

①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 단자 [A], [B]는 각각 명제 논리학의 [단순 명제]에 대응되고, [ $A + B = Y$ ]는 단순 명제가 결합된 것이므로 복합 명제에 대응된다고 봐야겠죠. 적절해요.

②

->논리 게이트는 [1]과 [0]의 이진법의 정보로 운영되는 전자 회로라고 했는데, 이는 [명제 논리학 -> 단순 명제의 진릿값 + 논리적 연결사 -> 논증의 타당성 검토 = 복합 명제의 진릿값 결정]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③, ④

->[OR 게이트]는 [A와 B의 입력값 중 -> 하나 이상이 1일 때 = 또는 -> 출력값이 1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 $A \vee B$ ]는 명제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연결사 중에서 [ $\vee$ ]를 통해 기호화할 수 있겠네요(=③). 또한 [입력값이 1인 것]은 [명제의 진릿값이 참인 경우]에, [입력값이 0인 것]은 [명제의 진릿값이 거짓인 경우]에 대응되므로, [OR 게이트]는 두 명제중 하나만 참일 때 결론이 참이 되는 경우와 대응될 수 있겠죠. 적절해요(=④)

### 35번 : ⑤

->섬유 예술은 실용성에 초점을 둔 공예와 달리 섬유가 예술성을 지닌 오브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어요. 그를 바탕으로 섬유 예술은 [고예이 한 재료에 불과했던 가죽을 예술성을 구현하는 오브제로 활용 -> 섬유를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순수한 미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①  
->섬유 예술은 올덴버그의 작품을 계기로 섬유를 예술성을 지닌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했어요..

②  
->1969년 [로잔느 섬유 예술 비엔날레전]에서 전시된 올덴버그의 [부드러운 타자기]는 섬유 예술이 새로운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③  
->섬유 예술은 섬유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예술적 조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했죠.

④  
->바스켓트리에서는 꼬기, 엮기, 짜기 등 섬유 예술의 전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예술적 조형성을 구현한다고 했어요.

### 36번 : ③

->콜라주는 [3차원적 입체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죠. [콜라주 <-> 아상블라주]를 비교해봤으면 쉽게 소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문단 [아상블라주는 -> 콜라주의 평면적인 조형성을 넘어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과 폐품 등을 혼합 ->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에서 확인 가능하죠. 3차원적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은 콜라주가 아니라 아상블라주죠.

①  
->짐승의 털은 섬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염소의 털이 활용된 점을 통해 섬유 예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오브제 = 일상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했죠. 이 작품에서 [나무 조각 / 신발 굽 / 염소 / 타이어]등은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사용된 것이고,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오브제라고 볼 수 있어요.

④  
->[아상블라주는 -> 콜라주의 평면적인 조형성을 넘어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과 폐품 등을 혼합 ->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했죠.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판넬에 염소를 세워 놓는 것은 3차원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아상블라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⑤  
->염소와 타이어의 결합은 오브제의 결합으로 볼 수 있고 아상블라주 기법으로 볼 수 있겠죠,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아상블라주는 섬유 예술에서 [현대 사회의 복합성이고 인류 문명의 한 단면을 상징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했죠. 따라서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명성을 위협하는 산업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송기원 - 다시 월문리에서]

작품해설 : 1980년대 [월문리]라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작가의 실제 경험을 소설의 형식으로 형상화한 연작 소설이에요. 여자로서 드센 팔자를 타고난 어머니는 (아버지가 서로 다른 -> 남매)를 또 다른 의붓아버지 밑에서 장돌뱅이를 하며 힘들게 키워요. 어머니는 정치 사범으로 독방에 갇힌 아들을 친자식임에도 법적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도 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은 어머니를 화병에 이르게 했고, 결국 어머니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는 독방에 있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고, 독방에서 나가게 된 후에 비로소 [월문리]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나]는 어머니가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충격으로 방황의 시간을 보내요. 이후에 [나]는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 어머니의 산소와 폐가를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기구했던 삶을 돌아보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한을 풀어 가면서,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화해에 이르고 있어요. (출처 - 교육청 해설) 하지만 이러한 전문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은 <보기>가 되었겠죠. 결국 제시된 장면에서의 핵심은 (중략 줄거리)를 기준으로 [나]의 [한 = 내적 갈등]이 고조되다, 해소됨을 파악해내는 것이었죠. 또한 (중략 줄거리)에서 제시해준 내용 중 [나는 감옥에서 나와 월문리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를 통해서 (중략 줄거리) 이전의 제시된 사건의 배경이 [감옥]이었다는 것도 파악해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의 독방이 감옥의 독방을 의미했겠네요. 늘 말하지만 발췌된 산문의 전문을 이해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기>와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 문제에서 묻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정상입니다.)

16번 :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 작품 내부의 서술자]

->소설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서술자의 구분 -> 작품 내부인지, 외부인지 -> 외부라면 그러한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물 관계, 사건 등을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해요. 해당 작품은 [작품 내부의 서술자 = 1인칭 서술자]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소설이었죠. 작품 내부와 외부의 구분은 [나, 내, 우리 <-> 그는, 민홍은, 그녀는, 강남홍은] 등과 같이 인물을 지칭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죠. 작품 내부의 서술자의 경우 당연히 1인칭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을 서술해나갈 것이고, 작품 외부의 서술자는 작품 내부의 인물들의 이름이나, 3인칭 표현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해나가요. 해당 지문은 [나 =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체험)을 전달하며 소설을 전개해나가고 있었죠. 이렇듯 작품 내부의 서술자의 경우, 그 서술자 자체가 작품에서의 중심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 심리, 생각 등을 서술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나]라는 작품 내부의 서술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며 소설이 전개되고 있고, 그러한 전개 과정에서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나 생각 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 ->선지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죠.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내면 심리 등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서술자) -> 등장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 ->선지의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죠. 서술자는 [나]로 고정되어 있고 교체되지 않았어요. 서술자의 교체가 간혹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중략 줄거리)를 기준으로 전환이 되거나, [A]와 같은 부분 발문을 통해 교체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 했다 -> (중략 줄거리) or [A] -> "그 / 그녀는 / 재홍은" ~ 하기 시작했다]등과 같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겠죠.

㉣[순행적 구성 / 역순행적 구성]  
->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면을 나눴을 때 [1 -> 2 -> 3]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하죠. 이와 반대로 [3 -> 2 -> 1], [2 -> 1 -> 3] 등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역순행적 구성]에 해당할 거구요. (중략 줄거리)를 기준으로 앞부분에서 [회상]을 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중략 줄거리) 바로 앞부분 [어머니였다. 여섯 살 무렵이던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눕혀져 있었다, ~]에서 확인 가능해요. 이러한 회상은 [현재 -> 과거]로의 진행이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봐야겠네요. 따라서 [순행적 구성]이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 ->선지의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나란히 배치]가 적절하지 않죠. [어머니의 죽음, 나의 회상,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화해한 것] 등은 모두 다른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죠. [현재 -> [나의 과거 회상 -> 현재]등과 같이 다른 시간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7번 : ㉢

->선지의 [어머니의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내려는 의지]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죠. <보기>에 따르면 [나]는 다시 [월문리]에 돌아와 어머니 산소와 폐가를 정리하는 행동을 통해 기구한 어머니의 삶과 한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한을 풀어 가게 된다고 했죠. 독방에서 단식을 하는 부분은 [나]가 다시 월문리에 찾아가기 전에 사건이죠. 또한 [중수다. 당신의 죽음이 한스러운 만큼 나도 거기에 못지않겠수 / 나는 그때 누구보다 바로 어머니에 대해서 이를 악물었을 것이었다. 나는 굶어 죽을 결심이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고간 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나마 이겨 내고 싶었다. 어머니의 한에 대한 자신의 무력감이 이제는 한 그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번져 갔는지도 모른다]를 보면 이는 오히려 <보기>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한을 받아들이고 -> 풀어내려는 의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 ->[빠가 다른 남매]라는 것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자식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문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러한 자식들을 또 다른 의붓아버지 그늘에서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이러한 어머니의 인생은 <보기>의 [어머니의 기구한 삶과 한]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겠죠. 적절해요.

②

->[나]가 독방에 있을 때 어머니는 법적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가 금지되었죠., 그 이후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겠죠.

④

->[나]는 독방에서 나와 다시 월문리에 돌아와 어머니의 폐가와 산소를 정리하고 어머니의 잠자리 옆에 누워보죠. 그러한 과정에서 [나]는 마치 어머니와 [한 몸] 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를 <보기>에 따라 감상하면 [나]가 어머니의 삶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어머니의 기구했던 삶을 돌아보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한을 풀어가게 된다고 했죠. 지문의 마지막 부분의 [나]의 꿈 속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꿈속의 [젊은 여자 -> 나의 새로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나]가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화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적절해요.

## 18번 : ⑤[핵심 소재 의미 파악]

->산문에서 늘 나오는 핵심이 되는 소재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해당 부분 주변에 주어진 발문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해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선지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주변 발문이나 단서를 통해 판별해주는 거죠. 해당 부분을 보면 [나'가 어머니의 폐가를 청소하고 나니 밤이 됨 -> 비가 내리기 시작함 -> '나'가 문간방에 누워 있음 -> 처마 기슭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차츰 무성해지고 있음 = 빗소리가 무성해지고 있음 -> 나는 움 -> 기쁨도 슬픔도 아닌 망망한 그리움을 느낌]이죠. 따라서 선지의 [고달픈 경험을 연상하게 하는 소재]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죠. 낙숫물 소리는 [나]가 기쁨도, 슬픔도 아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①

->㉠은 독방인데, [나]는 독방에서 어머니의 [부음 = 부고 = 죽음 소식]을 듣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지난 삶을 되돌아봤죠. [어처구니없는 이기심이었지만 ~]에서 확인 가능하죠.

②

->㉡은 어머니의 노랫소리인데 그러한 노래를 [나]의 과거 회상에서 [나]가 죽어갈 때,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머니가 부른 노래죠. [나]는 독방에서 그러한 노랫소리가 들리게 되고,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나의 이명처럼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려왔고 -> 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흠뻑 적셨다]와 같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죠. 따라서 ㉡은 나에게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호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③

->[어머니의 산소 앞에 있는 꽤 큰 덩치의 ㉢아카시아 숲이 시야를 답답하게 하는 느낌이어서]에서 확인 가능하죠. 아카시아 숲이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사실 [나]의 내면 심리가 답답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④

->㉢은 아랫목인데 이는 평소의 어머니의 잠자리죠. [나]는 이러한 ㉢에 누우면서 어머니와 [한 몸]이 되었다고 느끼죠. 따라서 이는 어머니의 자취를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충분하죠. 적절해요.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19~21번]

(가) [허난설현 - 빈녀음(貧女吟)]

작품해설 : 가난한 여인의 노래라는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느질 솜씨와 외모가 뛰어나지만 집안이 가난해 밤낮으로 생계를 위해 베를 짜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화자가 처지가 드러나죠. 또한 그러한 화자의 처지를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가는 다른 여자의 처지와 대비해서 드러내고 있고, 그를 통해 화자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나) [백석 - 편지]

작품해설: [당신]과 같은 청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수필이죠. 수필의 시작 부분은 정월 대보름 밤에 회상을 하는 현재의 이야기이고, 첫 번째 회상에서 수선화를 닮은 연인, 두 번째 회상에서 정월 대보름 밤, 고향 색시들의 풍속에 대해 서술하고 있죠. [첫 번째 회상 = 수선화를 닮은 여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서의 추억]이 [두 번째 회상 = 과거 정월 대보름 고향 마을의 풍속에 대한 공동체 서사로의 기억]으로 확대 되고 있어요.

19번 : ④

->(가)에서는 [뻘뻘뻘 / 싹둑싹둑 =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처량하고 고달픈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에서는 [찰락찰락 / 재깘재깘 / 끼득끼득 =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색시들의 움직이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①

->(나)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에서는 드러나지 않죠. (가)를 명시적 오답의 근거로 잡아 주셨으면 됩니다.

②

->(가), (나) 모두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삶의 덧없음을 부각하는 부분은 없죠.

③

->(가), (나) 모두 이상에 대한 열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어요.

⑤[연쇄법]

->(가), (나) 모두 연쇄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네요. 연쇄적 표현이란 [A->B / B->C / C->D]와 같이 앞 행의 마지막 부분을 뒤의 첫 부분이 이어 받아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 빨가면 사과 -> 사과는 맛있어 -> 맛있으면 바나나] 처럼요.)

20번 : ④

->(가)의 [베틀에 짜여가는 이 한 필 비단 -> 화자의 것X -> 어느 색시의 것]이므로 화자가 [옷감을 마르는] 힘겨운 일상에 위안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①

->화자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시집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베만 짜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해요.

②

->화자는 [가난해서 좋은 중매 자리가 들어오지 않음 -> 그로 인해 시집도 가지 못하고 -> 누군가를 위한 옷을 만들면서 -> 해마다 홀로 자고 있음]의 상황이므로 적절해요.

③[감정이입 = 객관적 상관물에 화자의 정서 투영]

->베틀은 실제로 청량하게 울지 않죠. 그런 베틀이 처량하게 운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정서가 처량한 것이고, 그러한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화자 -> 객관적 상관물 -> 자신의 정서, 감정이입]인 거죠. 화자가 이러한 처량함을 느끼는 까닭은 1~2연에서 제시해주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자란 까닭 -> 좋은 중매 자리X -> 하루 종일 창가에서 베만 짤 -> 부모님만 가없다 하실 뿐 -> 그 어떤 이웃이 이 내 속을 알라줄리오(=모름) -> 베틀이 처량하게 울(=화자의 정서)]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⑤

->[C]를 보면 화자는 베를 짜서 옷을 만들지만 자신이 입는 것이 아니라 [새색시]에게 간다고 했죠. 그리고 [D]를 보면 화자는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시집을 가지 못하고 [해마다 홀로 잔다]고 했어요. 따라서 [화자 : 길옷을 단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입는 것이 아니라 새색시에게 감, 자신은 홀로 잠] <-> [새색시 : 화자가 만든 옷을 입고 시집을 감]이므로 대비를 통해 서글픔을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1번 : ②

->화제가 [그 -> 새악시 처녀들]로 확대된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애상적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는 않죠. ㉞에서는 글쓰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수선화에 빗대어 그녀에 대한 애련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㉟에서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에 대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애상적 분위기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적절하지 않아요.

①

->(나)의 1문단에서 [나는 지금 ~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 노란 슬픔이 넋내같이 오릅니다 -> 아는 이제 이 긴 긴밤을 당신게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을 통해서 [글쓴이 -> 수선화 한 폭 = 매개적 기능 -> ㉓]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겅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를 통해 [글쓴이 -> 알록달록한 각시 -> 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절해요.

③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된 [병든 내 사람]은 3문단에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은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되겠죠. 따라서 병든 내 사람을 비유한 시들어가는 수선은 노란 슬픔에서 환기되는 이미지와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네요.

④

-><보기>에 따르면 지문의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풍속은 기억 속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⑤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 밤입니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반복해 표현하고 있었죠. 이는 <보기> [그리고 ㉔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에 대한 기억을 현재형 진술을 통해 촘촘히 불러냄으로써 ~ 복원하고, '지금', '여기'에서 재현될 수 있는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37~42번]

(나) [작자 미상 - 서대주전(鼠大州傳)]

작품해설 : 쥐를 의인화한 인물인 서대주를 통해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한 행태와 무능력함을 풍자하고 있는 고전 소설입니다.

(다) [작자 미상 - 별주부전(龍主簿傳)]

작품해설 : 토끼와 자라, 용왕 등의 인물을 통해 지배층의 횡포에 대해 교묘한 꾀로 맞서는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고전소설입니다. 네 쉽네요.

### 37번 : ⑤

->선지의 [계층 간의 갈등과 해소라는 전형적인 서사구조]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죠. 지문에서 언급된 내요임 아닙니다.

①

-> 1문단에서 [우화소설은 동물을 의인화한 이야기 -> 송사형 or 쟁론형]이라고 했어요.

②

-> 2문단에서 [우화소설은 -> 구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 ->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이라고 했어요.

③

-> 4문단에서 [우화소설은 ->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 or 봉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라고 했어요.

④

-> 1문단 [쟁론형 우화소설은 -> 시비를 다루는 사건을 제시] + 2문단 [우화소설은 ->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라고 했어요. 적절해요.

### 38번 : ②

->(나)에서 타남주가 귀양을 간 것은 원님이 서대주에게 넘어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인 거죠. 신의를 지켜야한다는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①

->(나)에서 서대주의 모습을 뽐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린다고 묘사한 건 (가)의 [동물의 외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③

->(나)에서 서대주의 자손들이 도적질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양감을 당하는 것은 (가)의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 의식과 도덕적 교훈 제시 -> 바람직한 사회상을 모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④

->(다)에서 토끼와 용왕의 대립 구도를 설정한 것은 (가)의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 -> 이러한 대립 구도는 소설의 갈등을 부각하는 서사적 장치 -> 독자의 흥미를 유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⑤

->(다)에서 토끼가 하체에 간이 출입하는 특별한 구멍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의 [구어나 비속어 도는 기지나 재치 있는 언술을 활용하여 -> 해학적 분위기 조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 39번 : ②

->서대주가 [타인의 권세를 빌려 -> 위세를 부리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나)를 보면 서대주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원님을 속이는 인물로 드러나고 있어요.

①

->(나)의 [수졸]은 서대주에게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로 나타나므로 적절해요.

③

->(나)의 [원님]은 서대주의 말을 믿고 타남주에게 매를 때리고 귀양을 보내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죠. 따라서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판관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④

->(다)의 [토끼]는 부귀영화를 위해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인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⑤

->(다)의 [용왕]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토끼의 간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이를 통해 민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자를 풍자한다고 볼 수 있어요.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 40번 : ①[서술자의 주관적 논평 = 편집자적 논평 = 서술자의 개입의 한 방법]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서술자는 서대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논평하고 있죠. (다)에서는 자라에게 속아 용궁을 끌려온 토끼에 대해서 서술자가 [세상에 턱없이 명리를 탐하는 자는 가히 이것을 보아 징계할지로다]라고 평하는 부분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논평은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선지로 등장하기도 하며, [서술자의 개입의 여러 방식 중 하나의 방식]에 해당해요. 이는 평가원의 이의제기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해요 :)

### ②[독백적 진술]

->독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가 묘사되고 있는 것은 (다)에서만 드러나죠. [이때에 토끼 이 말을 들으며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 듯 정신이 아득하여 생각하되 '내 부질없이 ~ 어찌라히오.']에서 확인 가능해요. (나)와 (다)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독자에게 작중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듯이 서술하고 있었어요. 이렇듯 소설에서의 독백적 진술이라는 것은 인물이 혼자말 하듯이 서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 (나)와 (다)에서 모두 드러나지 않아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구성된 형태를 의미해요. 즉 [외부 이야기의 작중 인물 -> 내부 이야기를 전달]의 형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나)와 (다)는 모두 외부 이야기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 ④[과장법]

->과장된 비유는 (다)에서만 드러났죠.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 듯 정신이 아득하여]에서 확인 가능해요.

### ⑤[장면 / 장면전환]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며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죠. [장면전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의 전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장면 =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인물이 벌이는 사건의 광경]이므로 장면이 전환된다는 것은 공간이나, 시간적 배경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하겠죠.

### 41번 : ②

->선지의 [자신의 선행을 나열]이 명시적 오답의 근거죠. [B]는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용왕에게 말하는 장면일 뿐이죠. 이러한 장면에서 토끼는 자신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간을 염통과 함께 꺼내 감추었다고 용왕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남들과 다른 면모를 역설(=힘주어 말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죠. 다만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요.

### ①

->[A]에서는 서대주가 타남주가 자신을 도리에 어긋나게 송사를 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므로 적절해요.

### ③

->[A]에서는 타남주가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B]에서는 자신의 간이 영약이 된다면 자신을 특수한 존재라는 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해요.

### ④

->[A]와 [B]는 각각 원님과 용왕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설득의 의도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해요.

### ⑤

->[A]의 서대주의 발화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 경어체 사용], [B]의 [천승의 임금이시오 소토는 산중의 조그마한 집승 -> 경어체 사용 /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수식]를 통해서 모두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적절해요.

### 42번 : ①

->토끼는 용왕이 자신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하자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토끼의 모습은 [임기응변 =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 ②

->[교육지책 =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

### ③

->[와신상담 = 싫에 누워 쓸개를 맛 본다 ->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 ④

->[권토중래 = 한번 패하였다가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

### ⑤

->[토사구팽 = 토끼가 잡혀 죽으면 사냥개는 쓸모없게 되어 살아 먹힌다 ->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

(가) [정지용 - 유리창]

작품해설 :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이중적 속성을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과 애절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라고 하네요. <보기>를 통해 감상해주셨으면 됩니다.

(나)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작품해설 : 번개에 맞아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봄이 되자 다시 잎을 틔우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느티나무, 나아가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외경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 역시나 <보기>를 통해 감상해주셨으면 됩니다.

### 43번 : ②[계절적 배경]

->(나)의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올봄도 잎을 내었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생명을 이어가고 생의 터전이 되어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 물론 저 감상은 <보기>에 있는 감상입니다. :)

#### ①[영탄법]

->(가)는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죠. [감탄사, !, 감탄형 종결어미]가 사용된 마지막 행과 같은 [영탄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며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설의법의 사용 -> 수사 의문문 ->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에서는 설의법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 ③[동적 <-> 정적]

->선지의 [정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정적 = 움직임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이니까요. (가)와 (나) 모두 동적인 심상을 주로 사용했죠. (가)에서는 [어린거린다 / 파다거린다 / 부딪히고 / 날러갔구나], (나)에서는 [밀어올리며 / 꺼낸다 / 피워내다니 / 내놓는다 / 퍼들고 있다] 등의 시어에서 확인 가능해요.

#### ④[의인법]

->선지의 [인간과 자연을 대비]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죠. (가)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대비가 없었어요. (나)에서는 [느티나무 -> 그]라고 표현했으므로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으니까요. 따라서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의인화에서 많이들 놓치는 것이 [인간이 아닌 것 ->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지칭]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대명사를 사용해 부르는 것은 당연히 의인화로 볼 수 있겠죠. :)

#### ⑤[말을 건네는 어투]

->(나)에선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지 않았죠. (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독백체로 진행이 되다, 마지막 행에서 [너]라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의 조건은 [구체적 청자 설정, 명시적 청자 설정 or 상대 높임법의 사용]이 됩니다.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화자가 청자를 설정하고 말을 한다는 거니까요.)

### 44번 : ③

->선지의 [소멸]이 명시적 오답의 근거죠. (나)를 보면 [잔가지 끝을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처럼 -> 잎사귀를 꺼낸다]이므로 생성의 이미지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 ①

->(가)의 화자는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는 <보기>에 따르면 [자식의 죽음 ->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 ②

->(가)의 화자는 자꾸 창문을 닦으면서 [지우고 보고]를 반복하고 있죠. 이는 <보기>에 따르면 [이처럼 유리 -> 단절과 소통의 이미지를 형상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 ④,⑤

->지문의 두 부분 모두 <보기>에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생명을 이어가고 생의 터전이 되어 주는 모습을 표현 -> 이처럼 아궁이는 각각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 45번 : ⑤

->선지의 [죽음도 기꺼이 감내하는 나무의 수용적 태도]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나)의 [밭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는 뿌리를 땅에 박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뿜고 있는 나무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죠. 따라서 [푸른 날개]를 뿜고 있는 나무는 죽음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하겠죠.

#### ①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

->[지우고 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②

->[자꾸만 -> 잎사귀를 꺼낸다]이므로 반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나무가 자꾸만 새로운 잎을 피우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자연의 부단한 생명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 외로운 <-> 황홀한 심사]이므로 표면적인 모순이 드러난 표현이고 역설법에 해당하죠. 이러한 모순된 심리는 죽은 자식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집약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④[형상화 /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산새처럼]이므로 직유법에 해당하고 이는 죽은 자식을 비유한 표현이죠. 따라서 이를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A화]는 A가 아닌 것이 A가 되는 거죠. 즉 **[형상화 =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에 해당하죠. 여기서 [자식에 죽음에 대한 상실감 = 심리, 정서 = 형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것 = 관념적인 것]을 [산새 = 명확한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